

사회복지현장실습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확보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들은 총 2,645개였다. 이 시설 및 기관들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총 1,141개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한 1,130개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율은 43.1%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배포설문지의 42.7%에 달하는 것이었다.

1. 설문지 배포기관 특성

1) 시설의 이용방식

설문지가 배포된 시설 및 기관들의 이용방식, 분야, 지역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이 1,696개로 64.1%에 달했으며, 생활시설은 917개로 34.7%였다. 성바오로수녀회 등 각종 수녀회 및 수도회, 적십자, 맹인점자 도서관, 복지와 사람들과 같은 출판업체 등 기타시설은 32개인 1.2%에 그쳤다.

단위: 개(%)

전체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2,645(100.0)	1,696(64.1)	917(34.7)	32(1.2)

2) 시설의 분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배부한 설문지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분야가 가장 많아서 356개인 13.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개 차이를 보인 353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13.3%를, 345개의 장애인분야가 13.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담공무원, 자활후견기관들이 200개를 넘었고, 사회복지의 기본이었던 아동분야는 193개로 7.3%에 머물렀으며, 의료와 구분되는 정신보건분야가 158개 6.0%였고 NGO/NPO가 132개 5.0%였다. 그 외 자원봉사분야, 협회 및 협의회 등의 주요단체, 복지재단 등은 5%미만이었다. 기타분야로는 종교재단, 언론사 등이 포함되었다.

단위: 개(%)

구분	배부 설문지 수	구분	배부 설문지 수
노인	356(13.5)	주요단체 및 직능단체	90(3.4)
지역사회복지관	353(13.3)	부랑인	84(3.2)
장애인	345(13.0)	여성	81(3.1)
전담공무원	252(9.6)	청소년	59(2.2)
자활후견기관	208(7.9)	의료	43(1.6)
아동	193(7.3)	복지재단	40(1.5)
정신보건	158(6.0)	정부조직	27(1.0)
NGO/NPO	132(5.0)	기타	119(4.5)
자원봉사	104(3.9)	총	2,645(100.0)

3) 시설의 지역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배부한 설문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6대 광역시와 9개 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21.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에 13.0%가 분포되어 있었다. 6대 광역시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많아 6.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 그리고 광주, 대전, 인천의 순이었고, 울산이 가장 적어 1.1%에 그쳤다. 도 중에서는 전라북도가 가장 많아 7.5%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순이었고 제주가 가장 적어 3.6%에 그쳤다.

단위: 개(%)

구분	배부 설문지 수	구분	배부 설문지 수
서울	569(21.5)	충남	113(4.3)
경기	344(13.0)	전북	198(7.5)
부산	160(6.0)	전남	152(5.7)
인천	91(3.4)	경북	160(6.0)
대전	94(3.6)	경남	175(6.6)
대구	135(5.1)	강원	108(4.1)
광주	103(3.9)	제주	95(3.6)
울산	28(1.1)	총	2,645(100.0)
충북	120(4.5)		

2. 분석대상 기관 특성

배포된 설문지 중에서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된 1,130개를 이용방식, 분야, 지역별로 그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이용방식

배포된 설문지 중에서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이용방식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이용시설이 669개로 배부된 설문지의 39.4%가 회수된 것이며, 생활시설의 경우 366개로 배부된 설문지의 60%가 회수된 것이다. 기타시설은 15개로 46.9%가 회수된 것이다. 생활시설에서 가장 많이 회수되었고 이용시설에서의 회수율이 가장 저조하였다. 한편 무응답이 무려 80개나 되었다.

단위 : 개(%)

	구분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이용방식	이용시설	669(39.4) / 1,696
	생활시설	366(60.0) / 917
	기타	15(46.9) / 32
	총	1,130(42.7) / 2,645

* 무응답: 80개

2) 시설의 분야

지역사회복지관이 266개 75.4%로 가장 많이 회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회수된 것은 정부조직 19개 70.4%였다. 장애인분야와 노인분야는 각각 233개 67.5%와 213개 59.8%였다. 복지재단과 NGO/NPO에서의 회수율이 가장 낮아 각각 7.5%, 7.6%를 보였다. 복지재단의 경우 실습을 실시하는 재단에서만 응답한 것으로 뒤에 밝혀졌으며, NGO/NPO의 경우도 응답시설의 80%가 실습을 실시하고 있어 실습실시기관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개(%)

	구분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분야	지역사회복지관	266(75.4) / 353
	정부조직	19(70.4) / 27
	장애인	233(67.5) / 345
	노인	213(59.8) / 356
	아동	87(45.1) / 193
	정신보건	68(43.0) / 158
	여성	32(39.5) / 81
	의료	14(32.6) / 43
	청소년	14(23.7) / 59
	부랑인	19(22.6) / 84

	자활후견기관	45(21.6) / 208
	전담공무원	49(19.4) / 252
	자원봉사	19(18.3) / 104
	주요단체 및 직능단체	13(14.4) / 90
	NGO/NPO	10(7.6) / 132
	복지재단	3(7.5) / 40
	기타	6(5.0) / 119
	총	1,130(42.7) / 2,645

3) 시설의 지역

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이 21.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기 13%, 전북 7.5%였다. 경남 6.6%, 경북과 부산 6.0% 순이었다. 서울에 20%가 넘게 위치하고 있어 서울에 가장 많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울산 1.1%, 제주 3.6%로 매우 낮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가장 적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에서 가장 많이 회수되어 20개 71.4%에 달했다. 그 외에는 60%의 회수율을 보인 지역은 없으며, 부산이 53.8%의 회수율을 보여 유일한 50%이상의 회수지역이다. 가장 많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회수율은 202개 시설 35.5%에 그쳤으며 경기도 역시 38.1%에 머물렀다.

단위: 개(%)

	구분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지 역	서울	202(35.5) / 569
	경기	131(38.1) / 344
	부산	86(53.8) / 160
	인천	35(38.5) / 91
	대전	36(38.3) / 94
	대구	66(48.9) / 135
	광주	49(47.6) / 103
	울산	20(71.4) / 28
	충북	56(46.7) / 120
	충남	48(42.5) / 113
	전북	79(39.9) / 198
	전남	68(44.7) / 152

	경북	79(49.4) / 160
	경남	71(40.6) / 175
	강원	47(43.5) / 108
	제주	28(29.5) / 95
	총	1,130(42/7) / 2,645

3. 설문 분석

분석은 우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1차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2차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현재 분석에 사용된 총 1,130개 시설 중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은 947개로 83.3%에 달했으며,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설은 183개로 16.2%에 그쳤다.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서 응답에 많이 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현재는 실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실시할 예정을 하고 있는 시설이 107개인 60.1%에 달하고 있어 실습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설에서 설문에 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분석: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여부 분석

우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시설 현황

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시설의 이용방식에 따라, 시설의 분야에 따라, 그리고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실습 실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1-1) 시설의 운영주체

시설의 운영주체를 100으로 보고 실시하는 시설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을 나누어보았다.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이 운영주체인 시설에서는 90%이상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법인이 85%이상, 그 다음으로 사단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순서로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학교법인은 총 41개 중 39개 95.1%에서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숫자는 적어도 대학이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시설이므로 거의 대부분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다음을 이어 90.8%의 실습 실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6.9%의 실습실시율을 보여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운영주체로는 재단법인, 의료법인, 비영리단체 등이 있었다.

단위: 개(%)

	구 분	실 시	미실시	회수된 설문지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652(90.8)	66(9.2)	718(100.0)
	종교법인	75(85.2)	13(14.8)	88(100.0)
	학교법인	39(95.1)	2(4.9)	41(100.0)
	사단법인	78(77.2)	23(22.8)	101(100.0)
	지방자치단체	31(36.9)	53(63.1)	84(100.0)
	기타	65(71.4)	26(28.6)	91(100.0)

1-2) 시설의 이용방식

시설의 이용방식을 100으로 보고 실시하는 시설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을 나누어보았다. 이용시설에서는 83.1%가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생활시설에서는 87.9%가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기타시설에서는 66.6%인 10개가 실습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단위: 개(%)

	구 분	실 시	미실시	회수된 설문지
이용방식	이용시설	555(83.1)	113(16.9)	668(100.0)
	생활시설	321(87.9)	44(2.1)	365(100.0)
	기타	10(66.7)	5(33.3)	15(100.0)

이는 협회가 이용시설에 배포한 설문지의 32.7%, 생활시설에 배포한 설문지의 39.8%, 그리고 기타시설에 배포한 설문지의 31.3%가 실습을 실시한다고 답한 것이다. 응답하지 않은 시설은 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시설의 이용방식별로 구분한 상태에서는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에서 더 많이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시설의 실습실시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2년제 대학생들의 실습수요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여 별도의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년제 대학생들의 45.9%가 생활시설에서 실습하고 있었으며, 4년제 대학생들은 이용시설에서 더 많이 실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들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모두에서 이용시설에서의 실습이 높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들의 실습수요가 생활시설에서의 높은

실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단위: 개(%)

구 분	2년제	4년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이용시설	313(53.8)	517(70.2)	95(73.1)	59(77.6)
생활시설	267(45.9)	210(28.5)	34(26.2)	16(21.1)
기타	2(0.3)	9(1.2)	1(0.8)	1(1.3)
총	582(100.0)	736(100.0)	130(100.0)	76(100.0)

1-3) 시설의 분야

시설의 분야를 100으로 보고 실시하는 시설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을 나누어보았다. 시설의 분야로는 응답한 복지재단 3곳 모두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어 260곳 97.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92.7%), 정신보건(92.6%), 주요단체(92.3%) 순이었다. 자활후견기관도 50%에서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NGO/NPO와 부랑인시설에서도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구 분	실 시	미 실 시	회수된 설문지
분야	복지재단	3(100.0)	-	3(100.0)
	지역사회복지관	260(97.7)	6(2.3)	266(100.0)
	장애인	216(92.7)	17(7.3)	233(100.0)
	정신보건	63(92.6)	5(7.4)	68(100.0)
	주요단체	12(92.3)	1(7.7)	13(100.0)
	노인	183(86.3)	29(13.7)	212(100.0)
	아동	73(83.9)	14(16.1)	87(100.0)
	NGO/NPO	8(80.0)	2(20.0)	10(100.0)
	부랑인	15(78.9)	4(21.1)	19(100.0)
	의료	11(78.6)	3(21.4)	14(100.0)
	청소년	11(78.6)	3(21.4)	14(100.0)
	여성	25(78.1)	7(21.9)	32(100.0)
	자원봉사	14(77.8)	4(22.2)	18(100.0)
	자활후견기관	23(51.1)	22(48.9)	45(100.0)
	전담공무원	11(22.4)	38(77.6)	49(100.0)
	정부조직	3(15.8)	16(84.2)	19(100.0)

	기타	2(33.3)	4(66.7)	6(100.0)
--	----	---------	---------	----------

이를 협회가 각 분야별로 배포한 수에 따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습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분야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 배포한 설문지의 73.7%가 실습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분야(62.6%), 노인 분야(51.4%), 정신보건분야(39.9%), 그리고 아동(37.8%), 여성(30.9%)의 순으로 실습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습을 가장 낮게 실시하고 있는 분야는 전담공무원으로 4.3%에 그쳤으며, 그 다음이 NGO/NPO로 6.0%, 그리고 복지재단 7.5%였다. 응답하지 않은 시설은 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시설의 분야별로 구분한 상태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가장 실습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아동, 여성의 순으로 실습을 실시하고 있어 직접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실습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담공무원이나 정부조직, NGO/NPO, 재단, 주요단체 등 간접서비스 분야에서의 실습이 낮게 나타나 이 분야에서의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분야에서의 실습 역시 18.6%로 낮았고 부랑인시설에서의 실습 역시 17.9%로 낮았는데 이 분야에서의 실습교육 개척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1-4) 시설의 지역

시설의 지역을 100으로 보고 실시하는 시설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을 나누어보았다. 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광주가 가장 높아 95.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주가 89.3%, 서울이 89.1%였다. 부산, 대전, 대구의 시설에서는 약 85%정도가 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과 강원은 경우 겨우 65%정도에 머물렀다.

단위: 개(%)

	구 분	실 시	미실시	회수된 설문지
지 역	서울	180(89.1)	22(10.9)	202(100.0)
	경기	108(82.4)	23(17.6)	131(100.0)
	부산	76(88.4)	10(11.6)	86(100.0)
	인천	29(82.9)	6(17.1)	35(100.0)
	대전	32(88.9)	4(11.1)	36(100.0)
	대구	58(87.9)	8(12.1)	66(100.0)
	광주	47(95.9)	2(4.1)	49(100.0)
	울산	16(80.0)	4(20.0)	20(100.0)
	충북	41(73.2)	15(26.8)	56(100.0)
	충남	39(81.3)	9(18.8)	48(100.0)

	전북	66(66.2)	13(12.8)	79(100.0)
	전남	53(77.9)	15(22.1)	68(100.0)
	경북	66(83.5)	13(16.5)	79(100.0)
	경남	55(77.5)	16(22.5)	71(100.0)
	강원	32(68.1)	15(31.9)	47(100.0)
	제주	25(89.3)	3(10.7)	28(100.0)

이를 협회가 각 지역별로 배포한 수에 따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습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울산으로 57.1%에 달했으며, 회수율도 80.0%로 가장 높고 실습실시율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47.5%, 광주가 45.6%, 대구가 43.0%, 경북이 41.3%로 40%대를 보여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31%대에 머물렀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29.6%와 26.3%를 나타내 실습을 가장 적게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응답하지 않은 시설은 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시설의 지역별로 구분한 상태에서는 울산이 실습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들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5) 요약정리

응답한 설문지 중에서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들의 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총 923개에 달한다. 이를 전체 배포한 설문지 수인 2,645개로 나누어 보면 34.9%의 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포된 설문지의 이용방식, 분야, 그리고 지역별 실습실시 현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5-1) 시설의 이용방식

단위: 개(%)

	구 분	실습실시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배포된 설문지
이용방식	이용시설	555(32.7)	668(39.4)	1,696(100.0)
	생활시설	321(39.8)	365(39.8)	917(100.0)
	기타	10(31.3)	15(46.9)	32(100.0)

1-5-2) 시설의 분야

단위: 개(%)

	구 분	실습실시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배포된 설문지
분야	복지재단	3(7.5)	3(7.5)	40(100.0)

	지역사회복지관	260(73.7)	266(75.4)	353(100.0)
	장애인	216(62.6)	233(67.5)	345(100.0)
	정신보건	63(39.9)	68(43.0)	158(100.0)
	주요단체	12(13.3)	13(14.4)	90(100.0)
	노인	183(51.4)	212(29.6)	356(100.0)
	아동	73(37.8)	87(45.1)	193(100.0)
	NGO/NPO	8(6.0)	10(7.6)	132(100.0)
	부랑인	15(17.9)	19(22.6)	84(100.0)
	의료	11(25.6)	14(32.6)	43(100.0)
	청소년	11(18.6)	14(23.7)	59(100.0)
	여성	25(30.9)	32(39.5)	81(100.0)
	자원봉사	14(13.5)	18(17.3)	104(100.0)
	자활후견기관	23(11.1)	45(21.6)	208(100.0)
	전담공무원	11(4.3)	49(19.4)	252(100.0)
	정부조직	3(11.1)	19(70.4)	27(100.0)
	기타	2(1.7)	6(5.0)	119(100.0)

1-5-3) 시설의 지역적 분포

단위: 개(%)

	구 분	실습실시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배포된 설문지
지 역	서울	180(31.6)	202(35.5)	569(100.0)
	경기	108(31.4)	131(38.1)	344(100.0)
	부산	76(47.5)	86(53.8)	160(100.0)
	인천	29(31.9)	35(38.5)	91(100.0)
	대전	32(33.0)	36(38.3)	94(100.0)
	대구	58(43.0)	66(48.9)	135(100.0)
	광주	47(45.6)	49(47.6)	103(100.0)
	울산	16(57.1)	20(71.4)	28(100.0)
	충북	41(34.2)	56(46.7)	120(100.0)
	충남	39(34.5)	48(42.5)	113(100.0)
	전북	66(33.3)	79(39.3)	198(100.0)
	전남	53(34.9)	68(44.7)	152(100.0)
	경북	66(41.3)	79(49.4)	160(100.0)

	경남	55(31.4)	71(40.6)	175(100.0)
	강원	32(29.6)	47(43.5)	108(100.0)
	제주	25(26.3)	28(29.5)	95(100.0)

2)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급 사회복지사 특성

실습을 담당하는 실습지도자 또는 실습지도자 급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으므로 응답자의 특성은 곧 실습실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실습지도자(또는 실습수퍼바이저)로 간주할 수 있다.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의 사회복지사의 특성 및 자격여부를 알아보았다.

2-1)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사의 성별 및 연령을 각각 100으로 보고 실시하는 시설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습 실시 시설이나 미실시 시설이나 성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26세-30세의 응답자의 대부분(90% 이상)이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31세부터 50세까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80% 이상)이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에 소속되어 있었다.

단위 : 개(%)

	구분	실시	미실시	회수된 설문지
성 별	여자	573(84.8)	103(15.2)	676(100.0)
	남자	367(82.7)	77(17.3)	444(100.0)
연 령	25세 이하	55(71.4)	22(28.6)	77(100.0)
	26-30세	222(90.6)	23(9.4)	245(100.0)
	31-35세	284(87.7)	40(12.3)	324(100.0)
	36-40세	143(85.1)	25(14.9)	168(100.0)
	41-45세	75(73.5)	27(26.5)	102(100.0)
	46-50세	37(80.4)	9(19.6)	46(100.0)
	50세 이상	11(57.9)	8(42.1)	19(100.0)
	평균연령	33세	35세	-

2-2) 사회복지사 자격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전공, 경력, 학력을 각각 100으로 보고 실시하는 시설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을 나누어보았다. 사회복지사 1급의 대부분(약 87%)은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2급자들은 약 24% 미실시 시설에 소속되어 있어 1급자들이 있는 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자 역시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에 더 많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학력에 있어서도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약 90%)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력에 있어서도 5년 이상 10년 경력자들은 대부분이 실습 실시시설에 소속되어 있었다. 즉,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의 조건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공, 4년제 이상의 학력, 그리고 3년-10년 사이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단위 : 개(%)

	구분	실시	미실시	회수된 설문지
사회복지 자격증	1급	717(86.9)	108(13.1)	825(100.0)
	2급	103(76.3)	32(23.7)	135(100.0)
	3급	2(50.0)	2(50.0)	4(100.0)
	미취득	25(45.5)	30(54.5)	55(100.0)
전 공	사회복지	813(86.5)	127(13.5)	940(100.0)
	기타	80(64.5)	44(35.5)	124(100.0)
학 력	고등학교	13(68.4)	6(31.6)	19(100.0)
	2년제	94(71.8)	37(28.2)	131(100.0)
	4년제	436(82.9)	90(17.1)	526(100.0)
	석사(과정)	382(90.3)	41(9.7)	423(100.0)
	박사(과정)	14(70.0)	6(30.0)	20(100.0)
실무경력	1년 미만	30(69.8)	13(30.2)	43(100.0)
	1년-2년	50(75.8)	16(24.2)	66(100.0)
	2년-3년	72(80.9)	17(19.1)	89(100.0)
	3년-5년	184(85.6)	31(14.4)	215(100.0)
	5년-10년	359(91.3)	34(8.7)	393(100.0)
	10년 이상	240(77.7)	69(22.3)	306(100.0)

3) 사회복지현장실습 미실시 시설 분석

현재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시설을 중심으로 미실시 이유와 실시 계획여부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미실시 이유

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업무과중의 이유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례 및 업무부족, 그리고 지도자의 부재 등이 실습 미실시의 주요 이유로 부각되었다. 이 질문에서는 1개만을 답하도록 하였으나 중복응답을 한 경우들이 있었으며, 가장 많이 중복 응답한 경우가 사례 및 업무부족이었다. 기타의 답변으로는 ‘실습의뢰가 없어서 못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실습기관이 아니다’, ‘행정업무만 하므로 실습할 수 없다’ 등이 있었다.

단위 : 개(%)

내용	개(%)	중복응답
업무과중	48(27.4)	-
사례 및 업무부족	34(19.4)	17
실습지도자 부재	25(14.3)	6
실습지도 공간부족	13(7.1)	6
실습지도의 인식부족 및 반대	5(2.9)	4
지도에 필요한 비용부족	2(1.1)	4
기타	48(27.4)	17

3-2) 실시 계획

3-2-1) 실시 계획 여부

실시계획이 있는 시설이 107개(60.1%)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개(%)

있다	107(60.1)
없다	71(39.9)
합계	183(100)

3-2-2) 실시계획 시설의 미실시 이유

실시계획이 있는 시설 107개만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우선 현재 미실시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실시계획이 있으나 없으나 현재 미실시의 이유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관의 인식부족의 이유에서만 실시계획을 가진 시설이 응답이 낮았고, 업무과중이나 사례부족 및 지도자의 부재 등의 이유는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단위 : 개(%)

이유	개	중복응답
업무 과중	28(26.7) / 48	-
실습지도자 부재	21(20.0) / 34	11
실습지도 공간 부족	16(15.2) / 25	5
지도에 필요한 비용 부족	9(8.6) / 13	2
실습지도의 인식부족 및 반대	2(1.9) / 5	2
사례 및 업무 부족	1(1.0) / 2	1
기타	28(26.7) /	5

3-2-3) 실시계획 시설의 운영특성

실습 미실시 시설들 중 실시 계획이 있는 시설들을 운영의 주체, 이용방식, 분야, 그리고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단법인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습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용시설이 이미 실습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어서인지 실시계획은 생활시설에서 더 많았다. 분야는 노인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정부조직에서도 실시계획을 갖고 있었다. 지역은 미실시 시설이 많았던 지역인 전북과 강원에서는 6.7%와 8.6%로 아직도 낮은 비율의 실시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비교적 낮은 실시율을 보였던 충북, 전남, 경남에서의 실시계획 역시 높지 않아 10.5%, 8.6%, 4.8%였다. 경남의 경우 5%에도 미달하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 개(%)

	실시계획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53(49.5)
	종교법인	9(8.4)
	학교법인	1(0.9)
	사단법인	13(12.1)
	지방자치단체	18(16.8)
	기타	13(12.1)
이용방식	생활	35(35.7)
	이용	61(62.2)
	기타	2(2.0)
분야	지역사회복지관	4(4.0)
	장애인	12(11.9)
	노인	21(20.8)
	여성	2(2.0)

	아동	8(7.9)
	청소년	1(1.0)
	자활훈련기관	19(18.8)
	부랑인	4(4.0)
	의료	2(2.0)
	정신보건	3(3.0)
	자원봉사	-
	정부조직	8(7.9)
	전담공무원	11(10.9)
	NGO/NPO	2(2.0)
	주요단체 및 직능단체	1(1.0)
	복지재단	-
	기타	3(3.0)
지 역	서울	13(12.4)
	경기	11(10.5)
	부산	6(5.7)
	인천	6(5.7)
	대전	3(2.9)
	대구	7(6.7)
	광주	2(1.9)
	울산	-
	충북	11(10.5)
	충남	6(5.7)
	전북	7(6.7)
	전남	9(8.6)
	경북	10(9.5)
	경남	5(4.8)
	강원	9(8.6)
	제주	-

3-3) 실시계획 시설의 실습지도자 급 사회복지사 자격 특성

설문에 답한 직원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3-3-1) 일반적 특성

설문에 답한 직원들의 성별은 남녀 비슷하였으며, 연령은 30세 이하가 가장 많아 39.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38.5%를 차지하여 비슷하였다. 역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곳에서 실습을 실시할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단위: 개(%)

	구분	개(%)
성 별	여자	50(47.6)
	남자	55(52.4)
연 령	25세 이상	18(19.8)
	26-30세	18(19.8)
	31-35세	21(23.1)
	36-40세	14(15.4)
	41-45세	14(15.4)
	46-50세	4(4.4)
	51세 이상	2(2.2)
	평균연령	33세

3-3-2) 사회복지사 자격

사회복지 전공자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를 갖추고 있는 시설의 경우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석사과정 및 졸업이 차지하였으며, 실무경력 역시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지도자의 학력과 경력이 실습을 실시하는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개(%)

	구분	개(%)
사회복지 자격증	1급	65(63.1)
	2급	24(23.3)
	3급	-
	미취득	14(13.6)
전 공	사회복지	82(80.4)
	기타	20(19.6)
학 령	고등학교	3(2.9)
	2년제	24(22.9)
	4년제	48(44.9)
	석사(과정)	28(26.2)
	박사(과정)	2(1.9)
실무경력	1년 미만	11(10.4)
	1년-2년	13(12.3)
	2년-3년	13(12.3)
	3년-5년	21(19.8)
	5년-10년	19(17.9)
	10년 이상	29(27.4)

4. 2차 분석: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시설 분석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947개를 분석하였다.

1) 시설 현황

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시설의 이용방식에 따라, 시설의 분야에 따라, 그리고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1-1) 시설의 운영주체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법인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652개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학교법인의 순서로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기타응답 중에는 재단법인이 22개, 의료법인이 7개였으며,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이 각각 1개씩 있었다.

단위: 개(%)

	구 분	N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652	69.4
	종교법인	75	8.0
	학교법인	39	4.1
	사단법인	78	8.3
	지방자치단체	31	3.3
	기타	65	6.9
	총	940	100.0

* 무응답: 7개

1-2) 시설 이용방식

이용방식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용시설이 62.6%로 생활시설의 36.2%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며, 기타 시설은 1.1%에 그쳤다.

단위: 개(%)

	구 분	N	%
이용방식	이용시설	555	62.6
	생활시설	321	36.2
	기타	10	1.1
	총	886	100.0

* 무응답: 61개

1-3) 시설의 서비스 제공 분야

서비스 분야별 시설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아 260개에 달했으며 비율로도 가장 높은 27.9%였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분야가 23.2%, 노인분야가 19.6%를 차지하였다. 아동분야, 정신보건분야가 뒤를 이었으나 각각 7.8%와 6.8%로 10%에도 못 미쳤으며, 그 이외의 분야들은 10%에도 못 미쳤다. NGO/NPO 및 정부조직과 복지재단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위: 개(%)

	구 분	N	%
분야	지역사회복지관	260	27.9
	장애인	216	23.2
	노인	183	19.6
	아동	73	7.8
	정신보건	63	6.8
	여성	25	2.7
	자활훈련기관	23	2.5
	부랑인	15	1.6
	자원봉사	14	1.5
	주요단체 및 직능단체	12	1.3
	의료	11	1.2
	청소년	11	1.2
	전담공무원	11	1.2
	NGO/NPO	8	0.9
	복지재단	3	0.3
	정부조직	3	0.3
	기타	2	0.2
	총	933	100.0

* 무응답: 14개

1-4) 시설의 지역별 분포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이 가장 많아 180개인 19.5%를 차지하였으며 경기지역이 108개로 11.7%를 차지하였다. 그 이외의 지역은 100개 이하의 시설에서 실습을 실시하고 있어 10%미만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북, 경북, 대구, 경남 순이었다.

단위: 개(%)

	구 분	N	%
지 역	서울	180	19.5
	경기	108	11.7
	부산	76	8.2
	인천	29	3.1
	대전	32	3.5
	대구	58	6.3
	광주	47	5.1
	울산	16	1.7
	충북	41	4.4
	충남	39	4.2
	전북	66	7.2
	전남	53	5.7
	경북	66	7.2
	경남	55	6.0
	강원	32	3.5
	제주	25	2.7
	총	863	100.0

* 무응답: 84개

1-5) 시설의 학력별 실습생 지도 현황

시설의 학력별 실습생 지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4년제 대학생의 실습지도가 가장 많아 786개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70.0%에 달했으며, 2년제 대학생의 지도는 620개 시설인 54.9%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일반대학원생의 지도는 12.7%인 143개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수대학원생의 지도는 매우 적어 81개 기관(7.2%)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위: 개(%)

전체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130(100.0)	620(54.9)	786(70.0)	143(12.7)	81(7.2)

1-6) 시설의 실습지도자 특성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의 응답자인 실습지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서 61%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균 33세로, 31세-35세의 연령대가 가장 많아 34.3%를 차지하였으며, 26-30세가 그 다음으로 26.8%에 달하였다. 50세 이상이 가장 적어 1%선

에 머물렀다.

단위: 개(%)

	구분	N	%
성 별	여자	573	61.0
	남자	367	39.0
연 령	25세 이하	55	6.7
	26-30세	222	26.8
	31-35세	284	34.3
	36-40세	143	17.3
	41-45세	75	9.1
	46-50세	37	4.5
	51세 이상	11	1.3
	평균연령	33세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의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가 91%에 달했으며, 사회복지사 1급이 가장 많아 84.7%에 달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과 사회복지학 전공은 실습을 교육하는 실습지도자에게는 필수조항인 것이다. 학력으로는 4년제 이상 졸업자가 가장 많아 46.4%에 달했으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 취득자가 많아 40.7%에 달했다. 실습지도자는 당연히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학부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 실습지도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실무경력 역시 5년-10년 이상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자와 3년-5년 이상의 경력자도 각각 25.7%와 19.7%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실습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학력 못지 않게 경력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개(%)

	구분	실시	%
사회복지 자격증	1급	717	84.7
	2급	103	12.2
	3급	2	0.2
	미취득	25	3.0
전 공	사회복지	813	91.0
	기타	80	9.0
학 력	고등학교	13	1.4
	2년제	94	10.0
	4년제	436	46.4
	석사(과정)	382	40.7
	박사(과정)	14	1.5
실무경력	1년 미만	30	3.2
	1년-2년	50	5.3
	2년-3년	72	7.7
	3년-5년	184	19.7
	5년-10년	359	38.4
	10년 이상	240	25.7

2) 실습 운영

2-1) 실습실시 이유

실습을 실시하는 이유는 인재양성인 경우가 7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려는 이유가 9.1%를 차지하였다. 기관의 홍보를 위해 실습생을 받아서 지도한다는 경우도 7.8%나 되었다.

단위: 개(%)

항목	N	%
인재양성	685	74.2
인력보충	84	9.1
기관홍보	72	7.8
기타	82	8.9
총	923	100

* 무응답: 24개

인재양성의 이유가 시설의 이용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분석해보았다. 이용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인재양성이 근본 이유인 것에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이용시설에서는 80.1%가 인재양성을 실습의 이유로 꼽았으며 이는 전체 평균비율인 74.2%보다 높은 비율이다. 반면에 생활시설에서는 인재양성은 62.7%에 그쳤으며, 인력보충과 기관홍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단위 : 개(%)

실습실시 이유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인재양성	438(80.1)	195(62.7)	6(60.0)
인력보충	35(6.4)	45(14.5)	2(20.0))
기관홍보	28(5.1)	43(13.8)	0(0)
기타	46(8.4)	28(9.0)	2(20.0)
총	547(100.0)	311(100.0)	10(100)

실습실시의 이유를 분야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전담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인재양성이 첫 번째 이유였다.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분야, 의료분야에서는 80% 이상의 시설에서 인재양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에 여성분야, 전담공무원, 아동분야에서는 20% 이상의 시설에서 인력보충을 실습의 이유로 들었다. 부랑인시설이나 직능단체에서는 25% 이상의 시설에서 기관의 홍보를 이유로 들었다. 전담공무원은 45.5%가 기타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하였다.

단위 : 개(%)

구 분	인재양성	인력보충	기관홍보	기타	총
지역사회복지관	228(88.0)	10(3.9)	5(1.9)	16(6.2)	259(100.0)
장애인	155(73.1)	16(7.5)	20(9.4)	21(9.9)	212(100.0)
노인	126(71.2)	21(11.9)	18(10.2)	12(6.8)	177(100.0)
여성	15(62.5)	8(33.3)	-	1(4.2)	24(100.0)
아동	41(56.2)	15(20.5)	10(13.7)	7(9.6)	73(100.0)
청소년	9(81.8)	2(18.2)	-	-	11(100.0)
주요단체 및 직능단체	9(75.0)	-	3(25.0)	-	12(100.0)
부랑인	8(57.1)	-	4(28.6)	2(14.3)	14(100.0)
의료	9(81.8)	1(9.1)	-	1(9.1)	11(100.0)

정신보건	44(75.9)	4(6.9)	5(8.6)	5(8.6)	58(100.0)
자원봉사	10(76.9)	-	2(15.4)	1(7.7)	13(100.0)
정부조직	-	1(33.3)	-	2(66.7)	3(100.0)
전담공무원	3(27.3)	3(27.3)	-	5(45.5)	11(100.0)
NGO/NPO	5(62.5)	1(12.5)	1(12.5)	1(12.5)	8(100.0)
자활후견기관	13(59.1)	-	4(18.2)	5(22.7)	22(100.0)
복지재단	2(66.7)	-	-	1(33.3)	3(100.0)
기타	1(50.0)	1(50.0)	-	-	2(100.0)

2-2) 실습생의 수

실습생의 수는 실습생의 학력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2003년 1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년제 대학 실습생의 경우 최저 1명부터 최고 90명까지 실습생을 지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실습생의 경우 한명도 지도하지 않은 기관부터 100명까지 지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모두 1명부터 20명까지로 나타났다. 실습생의 수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값 대신 중앙값으로서의 평균을 보았을 때 2년제 대학은 4명, 4년제 대학은 5명, 그리고 대학원은 모두 2명으로 나타났고, 최빈치는 2명으로(특수대학원 1명) 대부분의 기관에서 2명을 실습생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위: 명

	최저	최고	평균값(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
2년제	1	90	6.4	4	2
4년제	0	100	7.4	5	2
대학원	1	20	3	2	2
특수대학원	1	20	2.7	2	1

2-3) 실습 횟수

실습을 연 몇 회 실시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 항목 역시 학력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40%대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 1회, 그리고 연 4회 이상, 연 3회의 순서로 나타났다.

단위: 개(%)

	실습생 학력 구분			
	2년제	4년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회	225(36.3)	238(30.3)	47(32.9)	31(38.3)
2회	270(43.5)	373(39.4)	57(39.9)	34(42.0)
3회	53(8.5)	72(7.6)	12(8.4)	6(7.4)
4회 이상	72(11.6)	103(10.9)	27(18.9)	10(12.3)

2-4) 실습운영

실습을 운영하는 시기, 실습시간, 그리고 실습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들과 같다. 실습운영에 관해서는 실습생의 학력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에서는 방학 중에만 실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서 각각 54.5%와 56.9%에 달했으며,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실시한다는 답변은 각각 37.8%와 37.1%에 달했다. 반면에 학기 중에만 실시한다는 기관은 10%미만이였다. 이같은 추세는 대학원과는 달라서 일반대학원이나 특수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에서는 모두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실시한다는 경우가 각각 44.2%와 43.2%로 높았으며, 학기 중에만 실시한다는 경우도 약 20%에 달했다. 기타의 내용은 3주 동안, 3개월 동안, 실습생의 요구대로 등이였다.

단위:개(%)

	실습생 학력 구분			
	2년제	4년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기 중에만 실시	45(7.2%)	44(5.5%)	31(20.1%)	17(19.3%)
방학 중에만 실시	340(54.5%)	451(56.9%)	53(34.4%)	31(35.2%)
모두 실시	236(37.8%)	294(37.1%)	68(44.2%)	38(43.2%)
기타	3(0.5%)	4(0.5%)	2(1.3%)	2(2.3%)

실습시간에 관해서는 학력에 따른 구분 없이 평일 하루 종일 실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4년제, 일반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의 85%정도가 평일오전오후에 실시한다고 하였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특수대학원이 야간에 운영된다는 특성에 따라 실습 역시 평일 야간에 실시한다는 비율이 3.2%로 다른 학력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실습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특수대학원 역시 77.8%가 평일오전오후에 실습을 실시한다고 답하여, 기본적으로 실습을 실시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종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에는 실습생의 요구대로, 평일 10시-17시, 평일 10시-18시, 토요일 9시-12시 등이 있었다.

단위: 개(%)

	실습생 학력 구분			
	2년제	4년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평일오전(09 -12시)	21(3.4%)	21(2.7%)	2(1.1%)	2(1.6%)
평일오후(12-18시)	20(3.2%)	18(2.3%)	7(3.9%)	8(6.3%)
평일오전오후(09-18시)	523(84.5%)	691(87.5%)	148(82.7%)	98(77.8%)
평일야간(18시 이후)	7(1.1%)	7(0.9%)	3(1.7%)	4(3.2%)
주말(토요일, 일요일)	17(2.7%)	11(1.4%)	9(5.0%)	5(4.0%)
기타	31(5.0%)	42(5.3%)	10(5.6%)	9(7.1%)

실습기간에 관해서는 학기 중 실습과 방학 중 실습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학기 중에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학력에 따른 큰 구분없이 주 1회 15주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 2회 15주 이상을 지도하는 경우도 2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의 19.7%, 4년제 대학생을 지도하는 시설의 16.1%, 일반대학원생을 지도하는 시설의 17.4%, 그리고 특수대학원생을 지도하는 시설의 21.0%를 차지하고 있었다.

방학 중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2년제 대학생을 지도하는 시설의 78%, 4년제 대학생을 지도하는 시설들의 80.3%가 4주를 기본을 하면서 3주를 지도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일반대학원의 경우 67.4%만이 4주를, 나머지는 6주를 지도한다는 시설이 16.7%를 차지하였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72.3%가 4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8.5%는 6주를 지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기본적으로 2년제와 4년제는 4주 또는 3주가 기본이고,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4주 또는 6주가 기본이며,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4주, 3주, 6주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기중 기타내용은 3개월, 매일 3주, 주3회 7주, 매일 4주, 수시 등이었으며, 방학 중의 기타내용은 2주, 주5회 3주, 주3회 7주, 주1회 10주 등이었다.

단위: 개(%)

		실습생 학력 구분			
		2년제	4년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기 중	주1회 15주 이상	143(62.4%)	217(72.8%)	64(69.6%)	42(67.7%)
	주2회 15주 이상	45(19.7%)	48(16.1%)	16(17.4%)	13(21.0%)
	월2회 15주 이상	3(1.3%)	2(0.7%)	3(3.3%)	1(1.6%)
	기타	38(16.6%)	31(10.4%)	9(9.8%)	6(9.7%)
방학 중	3주	81(14.7%)	92(12.7%)	17(12.3%)	14(14.9%)

	4주	430(78.0%)	584(80.3%)	93(67.4%)	68(72.3%)
	6주	19(3.4%)	25(3.4%)	23(16.7%)	8(8.5%)
	기타	21(3.8%)	26(3.6%)	5(3.6%)	4(4.3%)

2-5) 실습생 모집 및 선정

시설들의 실습생 모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실습생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대학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 자체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단위: 개(%)

	실습생 학력 구분			
	2년제	4년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에서 의뢰	462(48.8%)	542(57.2%)	88(9.3%)	55(5.8%)
실습생 본인이 신청	409(43.2%)	553(58.4%)	118(12.5%)	82(8.7%)
기관 자체적으로 모집	77(8.1%)	156(16.5%)	32(3.4%)	14(1.5%)
기타	9(1.0%)	20(2.1%)	5(0.5%)	1(0.1%)

* 복수응답 허용

실습실시 기관들이 실습생을 모집하여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실습생의 사회복지학과/전공 재학여부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선정하게 된 실습생의 동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항목들은 50%이하의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수한 교과목의 종류, 봉사활동의 경험, 거주지역 등이 20%를 넘는 답변을 얻었고, 소속대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17.6%나 되었으며, 과거의 실습경험을 고려하는 경우도 8.7%나 되었다. 반면 학력이나 성별, 그리고 연령 및 종교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공문접수의 선착순, 실습생의 의욕과 태도 등이었다.

단위: 개(%)

항목	N	%
사회복지 전공 여부	761	80.4
실습기관 선정 동기	658	69.5
해당분야의 과목이수	292	30.8
자원봉사경험	260	27.5
실습생 거주지역	225	23.8
실습생 소속대학	167	17.6
실습 경험	82	8.7

학력(예:대학원생만 허용...)	37	3.9
성별	23	2.4
연령	14	1.5
종교	12	1.3
기타	41	4.3

* 3개 이상 복수응답 허용

실습생 선정시 고려사항이 시설이용방식에 따라 달리 설정되는지 살펴보았다. 이용 시설에서는 실습생의 사회복지학 전공 여부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82.0%), 그 다음으로 실습기관 선정동기(68.1)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시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실습기관 선정 동기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였고, 성별(5.6%)과 종교(2.8%)가 높은 비율로 고려되는 점이 이용시설과 다른 점이었다.

단위 : 개(%)

모집고려사항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실습 기관 선정 동기	378(68.1)	230(71.7)	6(60.0)
사회복지전공여부	455(82.0)	250(77.9)	7(70.0)
해당분야의 과목이수여부	193(34.8)	76(23.7)	3(30.0)
실습경험	42(8.1)	34(10.6)	1(10.0)
자원봉사경험	156(28.1)	86(26.8)	3(30.0)
실습생 소속대학	112(20.2)	49(15.3)	2(20.0)
실습생 거주지역	131(23.6)	80(24.9)	1(10.0)
성별	4(0.7)	18(5.6)	1(10.0)
연령	9(1.6)	5(1.6)	-
종교	3(0.5)	9(2.8)	-
학력(예: 대학원생만..)	29(5.2)	6(1.9)	-
기타	26(4.7)	13(4.0)	1(10.0)

실습생 선정시 고려사항이 분야에 따라 달리 설정되는지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90%가 사회복지전공을 고려 1순위로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습기관 선정동기(61.9%)를 보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학력(8%) 고려순위에 넣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 이외에 사회복지전공 여부를 1순위로 하는 분야는 의료분야(90.0%), 장애인분야(81.0%), 전담공무원분야(72.7%), 그리고 자활훈련기관(82.6%)이었다. 이 분야들에서는 그 다음 순위로 의료분야와 전담공무원분야에서는 해당분야 교과목이수(72.7%; 54.5%), 자활훈련기

관에서는 실습기관선정 동기(73.9%)였다. 해당분야 교과목 이수여부를 1순위로 보는 분야는 없었으나, 실습기관선정 동기를 1순위로 고려하는 분야는 노인(72.1%), 여성(92.0%), 자원봉사(92.8%), 그리고 NGO/NPO(87.5%) 분야들로 노인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분야들이었다. 자원봉사의 경험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20%-30% 고려하고 있었으며, 성별이나 연령 등은 거의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모집고려사항	지역사회 복지관 (n=260)	장애인 (n=216)	노인 (n=183)	아동 (n=73)	정신 보건 (n=63)	여성 (n=25)	자활 훈련기관 (n=23)
실습기관 선정 동기	161(61.9)	152(70.4)	132(72.1)	50(68.4)	48(76.1)	23(92.0)	17(73.9)
사회복지전공 여부	234(90.0)	175(81.0)	146(19.4)	54(73.9)	44(69.8)	19(76.0)	19(82.6)
해당분야의 과목이수여부	82(31.5)	73(33.8)	43(23.5)	22(30.1)	32(50.7)	5(20.0)	5(21.7)
실습경험	15(5.7)	21(9.7)	17(9.2)	9(12.3)	1(1.5)	5(20.0)	3(13.0)
자원봉사경험	60(23.8)	71(32.8)	43(23.5)	23(31.5)	23(36.5)	8(32.0)	7(30.4)
실습생 소속대학	66(25.3)	32(14.8)	31(16.9)	9(12.3)	12(19.0)	4(16.0)	2(8.7)
실습생 거주지역	64(24.6)	49(22.6)	56(30.6)	14(19.1)	6(9.5)	1(4.0)	9(39.1)
성별	1(0.3)	9(4.2)	5(2.7)	5(6.8)	1(1.5)	2(8.0)	-
연령	3(1.1)	3(1.3)	5(2.7)	3(4.1)	-	-	-
종교	1(0.3)	2(0.9)	4(2.1)	4(5.4)	-	-	-
학력	21(8.0)	5(2.3)	4(2.1)	2(2.7)	1(1.5)	1(4.0)	-

모집고려사항	부랑인 (n=15)	자원 봉사 (n=14)	주요단체 (n=12)	청소년 (n=11)	의료 (n=11)	전담 공무원 (n=11)	NGO /NPO (n=8)
실습기관 선정 동기	11(73.3)	13(92.8)	10(83.3)	9(81.8)	6(54.5)	5(45.4)	7(87.5)
사회복지전공여부	12(80.0)	4(28.5)	9(75.0)	8(72.7)	10(90.9)	8(72.7)	4(50.0)
해당분야의 과목이수여부	2(13.3)	3(21.4)	3(25.0)	3(27.2)	8(72.7)	6(54.5)	-
실습경험	2(13.3)	5(35.7)	1(0.8)	-	-	-	-
자원봉사경험	3(20.0)	5(35.7)	1(1.6)	6(54.5)	2(18.1)	3(27.2)	3(37.5)
실습생 소속대학	1(6.6)	-	3(25.0)	-	-	2(18.1)	1(12.5)
실습생 거주지역	5(33.3)	1(7.1)	5(41.6)	1(9.0)	1(9.0)	2(18.1)	5(62.5)
성별	-	-	-	-	-	-	-
연령	-	-	-	-	-	-	-
종교	1(6.6)	-	-	-	-	-	-

학력	-	1(7.1)	-	1(9.0)	-	-	-
----	---	--------	---	--------	---	---	---

3) 실습실시

3-1) 실습지도 내용

실습을 실시하면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내용으로는 다양한 답변이 보여졌다. 실습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실습생으로서의 바른 태도와 자세에 관한 내용이 가장 높아 96.4%를 차지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습에 임하는 자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90%를 넘는 항목이 없었고, 이론교육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82.2%를 차지하였다. 역시 유일한 80%를 넘는 항목이다. 이론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족하다는 표현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집단활동지도와 사례관리로 두 항목 모두 76%를 차지하였다. 실천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임을 알 수 있는 항목이다. 이에 반해 개별상담은 67%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50%를 넘는 항목으로는 행정업무, 업무보조, 타기관방문, 가정방문, 그리고 연구보고 및 계획서작성이 있다. 사례발굴,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교육 등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기타내용은 ‘모든 프로그램 및 사업 참여’, ‘작업장 체험’, ‘성격유형검사’, ‘시청각교육’, ‘진로상담’, ‘심리검사’, ‘마케팅’, ‘정신과상담’, ‘학습지도’ 등이었다.

단위: 개(%)

항목	N	%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생의 태도와 자세	913	96.4
기초 이론교육	778	82.2
집단활동 및 지도	725	76.6
사례관리	722	76.2
개별상담	635	67.1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등)	617	65.2
업무보조(서류, 문서정리, 복사 등)	597	63.0
타 기관 방문	586	61.9
가정방문	485	51.2
연구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482	50.9
재활프로그램운영	420	44.4
캠프운영	386	40.8
사회조사	352	37.2
사례발굴(케이스 파인딩)	337	35.6
자원봉사자관리	322	34.0
사회운동, 홍보 및 옹호활동	313	33.1
팀접근에의 참여	311	32.8
지역탐방	272	28.7

사회교육	269	28.4
기타	123	13.0

* 복수응답 허용

이같은 실습생 지도 내용이 시설이용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역시 실습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실습생으로서의 바른 태도와 자세에 관한 내용이 가장 높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에서 90%를 넘게 차지하였다. 이용시설방식이 어떤 것이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습에 임하는 자세인 것이다. 그 다음은 이론교육으로 이용시설(86.8%)과 생활시설(74.5%)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차이를 보인 항목들은 사례관리(80.7%; 68.2%)와 집단활동 및 지도(78.6%; 73.5%)로 이용시설에서는 사례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생활시설에서는 집단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상담(69.5%; 62.6%)은 두 시설양식 모두에서 낮게 나타나 실습생에게는 개별적인 접근이 낮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이용방식간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가정방문, 타기관방문, 업무보조,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이었다. 이용시설에서는 가정방문(76.9%)이 상대적으로 높게 활용되고 있는 실습내용이었으나 생활시설에서는 시설의 특성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1.0%) 있었으며, 타기관방문(71.0%; 48.0%)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반면에 생활시설에서는 재활프로그램운영(59.8%)을 지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용시설에서는 행정업무(74.8%)를 비중 있게 지도하고 있는 반면, 생활시설에서는 업무보조(60.5%)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단위 : 개(%)

실습지도내용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실습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생의 태도와 자세	536(96.6)	309(96.3)	10(100.0)
기초 이론 교육	482(86.8)	239(74.5)	9(90.0)
개별상담	386(69.5)	201(62.6)	9(90.0)
집단 활동 및 지도	436(78.6)	236(73.5)	6(60.0)
사례관리	448(80.7)	219(68.2)	6(60.0)
가정방문	427(76.9)	32(1.0)	2(20.0)
사례 발굴 (케이스 파인딩)	230(41.4)	86(26.8)	2(20.0)
재활프로그램운영	191(34.4)	192(59.8)	4(40.0)
사회조사	299(53.9)	33(10.3)	1(10.0)
사회교육	221(39.8)	30(9.3)	-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등)	415(74.8)	165(51.4)	8(80.0)

각종업무보조(서류, 문서정리, 복사 등)	362(65.2)	195(60.7)	8(80.0)
캠프운영	287(51.7)	76(23.7)	5(50.0)
사회운동, 홍보 및 옹호활동	251(45.2)	45(14.0)	1(10.0)
팀 접근에의 참여	202(36.4)	85(26.5)	1(10.0)
자원봉사자관리	184(33.2)	114(35.5)	4(40.0)
타 기관방문	394(71.0)	154(48.0)	5(50.0)
지역탐방	213(38.4)	41(12.8)	3(30.0)
연구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314(56.6)	135(42.1)	6(60.0)
기타	80(14.4)	38(11.8)	1(10.0)

3-2) 실습지도 양식 및 도구

이같은 내용의 실습지도를 할 때 활용하는 도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보였다. 90%이상의 응답자가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도구는 실습일지, 실습일정표, 그리고 실습지도계획서이다. 종결평가서가 88%에 머물고 있는 것은 20%정도의 시설에서는 종결평가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실습을 평가하고 또 성적을 매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생신상서도 86.1%로 낮은 편이고 자기소개서도 71.8%로 낮은 것 역시 실습을 시설견학 중심이나 업무보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실습레코딩의 활용이 59.3%에 머물러 있고, 중간평가서의 활용이 55%에 그치고 있으며, 실습계약서의 활용이나 학습계약서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의 홍보와 함께 계약서 양식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안전관리수칙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하겠으며, 실습생의 실습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타내용은 ‘실습과제물’,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진행제시’, ‘사례관리 및 프로포절 발표’, ‘자기평가’, ‘동료평가’, ‘기관방문보고서’ 등이었다.

단위: 개(%)

실습지도 도구	N	%
실습일지	911	96.2
실습일정표	889	93.9
실습지도 계획서	853	90.1
실습종결평가서	834	88.1
학생신상서	815	86.1
실습 의뢰 신청 및 서약서	722	76.2
자기소개서	680	71.8

실습생 출근 기록표	637	67.3
실습수퍼바이저 평가서	610	64.4
실습레코딩(과정기록지, 집단활동지 등)	562	59.3
실습중간평가서	528	55.8
실습기관에 관한 기초조사표	451	47.6
실습계약서 (기관과 학교)	387	40.9
안전관리수칙안내	298	31.5
학습계약서(수퍼바이저와 학생)	219	23.1
기타	54	5.7

* 복수응답 허용

이같은 실습지도 활용 도구가 시설이용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리 활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에서 실습일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비율은 두 유형 동일하게 96.6%였다. 그 다음으로 실습일정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용시설에서는 실습지도계획서, 종결평가서, 학생신상서 등을 90%이상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생활시설에서는 실습지도계획서 및 평가서의 활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습레코딩의 활용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용시설에서는 66.3%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시설에서는 50%미만에 그치고 있었다. 반면 안전관리수칙안내에 있어서는 생활시설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실습지도 도구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실습일지	536(96.6)	310(96.6)	10(100.0)
실습일정표	525(94.6)	300(93.5)	9(90.0)
실습지도 계획서	512(92.3)	281(87.5)	9(90.0)
실습종결평가서	516(93.0)	258(80.4)	10(100.0)
학생신상서	502(90.5)	254(79.1)	9(90.0)
실습 의뢰 신청서 및 서약서	438(78.9)	277(49.9)	7(70.0)
자기소개서	435(78.4)	195(60.7)	5(50.0)
실습생 출근 기록표	378(68.1)	216(67.3)	5(50.0)
실습수퍼바이저 평가서	363(65.4)	206(64.2)	7(70.0)
실습레코딩(과정기록지, 집단활동지 등)	368(66.3)	157(48.9)	6(60.0)
실습중간평가서	344(62.0)	144(44.9)	4(40.0)
실습기관에 관한 기초조사표	267(48.1)	157(48.9)	2(20.0)
실습계약서 (기관과 학교)	209(37.7)	145(45.2)	6(60.0)

안전관리수칙안내	164(29.5)	106(33.0)	5(50.0)
학습계약서(수퍼바이저와 학생)	132(23.8)	67(20.9)	3(30.0)
기타	36(6.5)	11(3.4)	1(10.0)

4) 실습수퍼비전

4-1) 실습수퍼바이저

실습수퍼바이저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00개의 기관인 86.2%가 있다고 답하였다.

단위: 개(%)

구분	N	%
있다	800	86.2
없다	128	13.5
총	928	100

* 무응답: 19개

실습수퍼바이저가 몇 명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총 903개의 기관이 답변하여 실습수퍼바이저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800개 기관보다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는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습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수퍼바이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실습지도자들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실습수퍼비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사려된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설문지의 답변에 의거한 실습수퍼바이저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실습수퍼바이저가 가장 많은 경우는 1명이었으며, 424개 기관인 47.0%에서 그렇게 답하였다. 그 다음이 2명으로 231개 기관 25.6%에서 그렇게 답하였으며, 6명 이상이라고 답한 기관도 74개인 8.2%나 되었다.

단위: 개(%)

구분	N	%
1명	424	47.0
2명	231	25.6
3명	85	9.4
4명	52	5.8
5명	37	4.1
6명 이상	74	8.2
총	903	100.0

실습수퍼바이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이 가장 많아 823개 기관에 달했으며, 2급은 187개 기관이었고, 3급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어 각각 17개 45개 기관에 달했다. 이 숫자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이 중복 계산이 되므로 100%가 될 수 없다. 여기서도 역시 수퍼바이저에 대한 이해의 혼돈으로 인해 수퍼바이저 중 사회복지사 1급의 숫자가 66명이라는 시설까지 있었다. 10명 이상의 2급 및 3급의 수퍼바이저를 표기한 시설도 있었으며, 최대 8명의 무자격 수퍼바이저가 있다고 표기한 시설까지 있었다.

단위: 개(%)

자격	N	%
1급	823	86.9
2급	187	19.7
3급	17	1.8
무자격	45	4.8

실습수퍼바이저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기관이 가장 많아 563개 기관에 달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중이거나 졸업한 자가 실습수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 또한 그 다음으로 많아 489개 기관이었고 박사과정 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실습수퍼바이저로 하는 경우도 44개 기관에 달했다.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실습지도를 맡기는 기관도 27개나 되었다. 고졸인 경우는 1명이 가장 많았고 3명까지 있었으며, 2년제인 경우는 1명이 가장 많았고 13명까지 있었다. 4년제의 경우는 1명이 가장 많아 293개였으며 66명까지 있었고, 석사의 경우 1명(309개 기관)이 가장 많되 9명(2개 기관)까지 있었으며, 박사의 경우는 1명(41개 기관) 또는 2명(3개 기관)을 수퍼바이저로 하고 있었다.

단위: 개(%)

학력	N	%
고졸	27	2.9
2년제 대학 졸업	179	18.9
4년제 대학 졸업	563	59.5
석사과정/졸업	489	51.6
박사과정/졸업	44	4.6

실습수퍼바이저의 경력으로는 9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아 438개 기관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4년-5년, 6년-8년 이상의 수퍼바이저를

두고 있는 기관은 337개와 338개로 거의 동일하였다. 1년-3년 이상의 수퍼바이저를 두고 있는 기관도 306개 기관으로 1년부터 8년까지의 경력의 수퍼바이저를 두고 있는 기관들은 비슷비슷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었다.

단위: 개(%)

경력	N	%
1년 미만	71	7.5
1년-3년	306	32.3
4년-5년	337	35.6
6년-8년	338	35.7
9년 이상	438	46.3

실습수퍼바이저의 직급은 과장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아 370개 기관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팀장 또는 대리를 실습수퍼바이저로 두고 있는 기관이 365개였다. 일반사회복지사가 실습수퍼바이저인 경우도 332개나 되었으며, 기관장은 단지 17%의 기관에서만 실습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직급	N	%
99일반사회복지사	332	35.1
팀장/대리	365	38.5
과장	370	39.1
부장	300	31.7
기관장	161	17.0
기타(사무장, 심리사 등)	6	0.6

4-2) 실습수퍼비전 기준

실습수퍼비전을 제공하는 기준은 정기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53.1%에 달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정도가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습수퍼비전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실습생이나 수퍼바이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마다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가 20%씩 차지하였다. 기타에는 ‘조회시 종료시’, ‘실습일지를 통하여’ 등이 있었다.

단위: 개(%)

구분	N	%
수퍼비전을 제공하지 못함	15	1.6
실습생이 원할 때 수시로	191	20.9
실습수퍼바이저가 원할 때 수시로	181	19.8
정기적으로	484	53.1
기타	41	4.5
총	912	100.0

* 무응답: 35개

4-3) 수퍼비전 단위

수퍼비전을 주는 단위를 물었다. 학기 중에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수시로 수퍼비전을 제공한다는 앞의 답변에 따라 수시로 제공한다는 답변이 50%를 넘었다. 집단의 경우는 주 1회 제공하고 있었다. 방학 중에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주 1회에 해당되는 매일 제공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 1회 제공하는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주 3회 또는 주 2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위: 개(%)

		수퍼비전 형태	
		개별	집단
학기 중	수시로	175(52.6)	115(34.6)
	1주 1회	115(34.5)	170(51.2)
	2주 1회	11(3.3)	11(3.3)
	월 1회	17(5.1)	20(6.0)
	기타	15(4.5)	16(4.8)
방학 중	매일	337(58.6)	347(57.4)
	주 3회	42(7.3)	49(8.1)
	주 2회	38(6.6)	55(9.1)
	주 1회	124(21.6)	134(22.1)
	기타	34(5.9)	20(3.3)

4-4) 수퍼비전 시간

수퍼비전을 주는 시간은 30분 이하가 가장 많은 4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를 차지한 60분 이하였다.

단위: 개(%)

구분	N	%
10분 이하	74	7.8

30분 이하	464	49.0
60분 이하	281	29.7
90분 이하	51	5.4
120분 이하	31	3.3
총	901	100.0

* 무응답: 46개

수퍼비전을 주는 시간을 시설이용방식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에서 30분 이하가 가장 많은 47.9%와 56.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용시설은 60분이하도 많아서 35%를 차지한 반면 생활시설은 10분이하도 9.5%를 차지하는 차이를 보였다.

단위 : 개 (%)

수퍼비전 시간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10분 이하	39(7.3)	29(9.5)	2(20.0)
30분 이하	255(47.9)	173(56.7)	6(60.0)
60분 이하	186(35.0)	79(25.9)	1(10.0)
90분 이하	34(6.4)	14(4.6)	0(0.0)
120분 이하	18(3.4)	10(3.3)	1(10.0)
총	532(100.0)	305(100.0)	10(100.0)

4-5) 수퍼비전 방법

수퍼비전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실습일지 검토하는 것이었으며, 수퍼바이저의 90.7%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구두보고에 의한 수퍼비전이 62.2%를 차지하였다. 기록지를 검토하거나 실습하는 내용을 관찰하는 경우는 40%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도 매우 낮아서 34.2%에 그쳤다. 이는 사례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실습을 지도하는 시설이 많은 것이 이유로 보여진다. 기타로는 ‘상담’, ‘사례활동’, ‘기관방문’ 등이 있었다.

단위 : 개 (%)

항목	N	%
실습일지 검토	859	90.7
구두로 주고 받음	589	62.2

사례과정 기록지 검토	411	43.4
직접관찰(배석, 일반경 등)	405	42.8
사례 발표	324	34.2
교재 활용	193	20.4
교육강좌 제공	190	20.1
실습지도의 시범보임	143	15.1
녹음, 녹화 자료 분석	13	1.4
기타	25	2.6

* 복수응답 허용

수퍼비전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방식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수퍼비전 제공 시 사용하는 방법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에서는 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교재를 활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생활시설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인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 하겠다.

단위 : 개(%)

	이용시설(n=555)	생활시설(n=321)	기타(n=10)
실습일지검토	511(92.1)	288(89.7)	8(80.0)
구두로 주고받음	343(61.8)	204(63.6)	7(70.0)
사례과정 기록지 검토	266(47.9)	120(37.4)	3(30.0)
직접관찰(배석, 일반경 등)	228(41.1)	143(44.5)	4(40.0)-
사례발표	215(38.7)	86(26.8)	3(30.0)
교재활용	110(19.8)	71(22.1)	2(20.0)
교육강좌제공	114(20.5)	66(20.6)	-
실습지도의 시범보임	74(13.3)	58(18.1)	-
녹음, 녹화 자료 분석	6(1.1)	6(1.9)	-
기타	17(3.1)	7(2.2)	1(10.0)

4-6) 수퍼비전 제공 상의 문제

수퍼비전을 제공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시간이 부족하여 수퍼비전을 제공하는데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수퍼바이저가 62.2%에 달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수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해당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실습생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 부수적이지만 실습생과의 관계형성이

나 실습생의 비윤리적 행위가 수퍼비전을 제공하는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타에는 ‘업무과다’, ‘실습 전 이론교육 미비’, ‘교수 의식 부재’, ‘고유업무의 부담’ 등이 있었다.

단위: 개(%)

항목	N	%
실습수퍼비전 시간 부족	589	62.2
실습수퍼바이저 본인의 수퍼비전 기술 부족	108	11.4
실습수퍼바이저 본인의 해당분야 지식 부족	98	10.3
실습생의 해당분야 지식 부족	60	6.3
실습생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11	1.2
실습생의 비윤리적 행위	2	0.2
기타	23	2.4

* 복수응답 허용

4-7) 수퍼비전을 통한 지도의 문제

앞에서는 수퍼비전 자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수퍼비전을 통해 실습생을 지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실습수퍼비전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과외의 업무를 떠맡게 됨으로써 업무의 과다라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였다. 그 다음으로 실습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수퍼바이저의 54.1%에 달하였다. 그 외 실습공간이 부족하다는 물리적인 이유도 30%나 차지하였다. 비록 비율은 10%대에 머물러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습시간과 프로그램기간이 맞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 실습에 대한 대학에서의 무관심과 비협조, 실습생에게 배분해주어야 할 사례나 업무의 부족 또는 부재, 대학에서의 지도와의 차이 등도 수퍼비전을 제공하는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타로는 ‘무분별한 사회복지사 양성’, ‘실습생의 수 증가로 실습의 질 저하’, ‘복수전공허용’ 등이 있었다.

단위: 개(%)

항목	N	%
실습지도자의 업무 과다	750	79.2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512	54.1
실습공간 부족	286	30.2
프로그램 기간과 맞지 않음	160	16.9
대학에서의 무관심, 비협조	151	15.9

기관의 사례 및 업무 부재 또는 부족	139	14.7
기관과 대학에서의 지도내용 차이	124	13.1
실습생 태도 불량	94	9.9
실습교육의 무계획성	90	9.5
실습시간이 프로그램 시간과 맞지 않음	73	7.7
실습에 교육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70	7.4
지역사회의 자원 부족	70	7.4
기관의 설비 부족	69	7.3
실습지도의 기관정책 미반영	68	7.2
기관과 대학의 문서양식 차이	53	5.6
클라이언트와 문제 발생	34	3.6
기관 직원과 문제 발생	19	2.0
기관 및 법인에서의 비협조	9	1.0
기타	44	4.6

* 복수응답 허용

5) 실습수퍼비전에 따른 실습지도

5-1) 실습수퍼비전에 따른 실습지도 내용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실습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았다.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집단활동 및 지도, 사례관리, 개별상담, 팀접근 참여, 사회조사 및 사회교육 등의 실습내용이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수퍼비전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행정업무나 업무보조, 자원봉사자 관리 등에 비중을 둔 실습내용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실 습 내 용	정기적 실시	비정기 실시/미실시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생의 태도와 자세	481(99.4)	432(93.3)
기초 이론교육	431(89.0)	347(74.9)
집단활동 및 지도	406(83.9)	319(68.9)
사례관리	406(83.9)	316(68.3)
개별상담	348(71.9)	287(62.0)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등)	334(69.0)	283(61.1)
업무보조(서류, 문서정리, 복사 등)	291(60.1)	306(66.1)
타 기관 방문	335(69.2)	251(54.2)
가정방문	276(57.0)	209(45.1)

연구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286(59.1)	196(42.3)
재활프로그램운영	239(49.4)	181(39.1)
캠프운영	200(41.3)	186(40.2)
사회조사	208(43.0)	144(31.1)
사례발굴(케이스 파인딩)	188(38.8)	149(32.2)
자원봉사자관리	163(33.7)	159(34.3)
사회운동, 홍보 및 옹호활동	182(37.6)	131(28.3)
팀접근에의 참여	197(40.7)	114(24.6)
지역탐방	168(34.7)	104(22.5)
사회교육	157(32.4)	112(24.2)
기타	63(13.0)	60(13.0)

5-2) 실습수퍼비전에 따른 실습지도 도구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실습지도의 도구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보았다.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실습일지 및 실습일정표의 사용은 기본으로 수퍼비전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하고 있었다. 실습레코딩의 사용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도구로 보여지고 있으며, 실습수퍼바이저 평가서, 실습중간평가서, 학습계약서 등이 두 집단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단위 : 개 (%)

실습 지도 도구	정기적 실시	비정기 실시/미실시
실습일지	479(99.0)	432(93.3)
실습일정표	474(97.9)	415(89.6)
실습지도 계획서	457(94.4)	396(85.5)
실습종결평가서	463(95.7)	371(80.1)
학생신상서	449(92.8)	366(79.0)
실습 의뢰 신청 및 서약서	391(80.8)	311(67.2)
자기소개서	393(81.2)	287(62.0)
실습생 출근 기록표	324(66.9)	313(67.6)
실습수퍼바이저 평가서	339(70.0)	271(58.5)
실습레코딩(과정기록지, 집단활동지 등)	339(70.0)	223(48.2)
실습중간평가서	320(66.1)	208(44.9)
실습기관에 관한 기초조사표	242(50.0)	209(45.1)
실습계약서 (기관와 학교)	213(44.0)	174(37.6)

안정관리수칙안내	147(30.4)	151(32.6)
학습계약서(수퍼바이저와 학생)	129(26.7)	90(19.4)
기타	36(7.4)	18(3.9)

5-3) 실습수퍼비전에 따른 실습지도 시간 및 방식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실습지도의 시간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보았다.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30분에서 60분의 평균 실습수퍼비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시간을 할애하는 시설도 19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30분 이하가 가장 많고 10분 이하의 수퍼비전 시간을 할애하는 시설도 10%나 되었다.

단위 : 개 (%)

평균실습수퍼비전시간	정기적 실시	비정기 실시/미실시
10분 이하	27(5.6)	47(10.2)
30분 이하	230(47.5)	234(50.5)
60분 이하	169(34.9)	112(24.2)
90분 이하	35(7.2)	16(3.5)
120분 이하	19(3.9)	12(2.6)
총	480(100.0)	421(100.0)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실습지도의 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보았다.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일지검토는 당연히 하는 일로 되어 있었으며, 직접관찰도 42%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15%에서는 시범을 보이는 형식으로의 실습지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단위 : 개 (%)

실습수퍼비전 제공방식	정기적 실시	비정기 실시/미실시
실습일지 검토	464(95.9)	395(85.3)
구두로 주고 받음	298(61.6)	291(62.9)
사례과정 기록지 검토	236(48.8)	175(37.8)
직접관찰(배석, 일반경 등)	205(42.4)	200(43.2)

사례 발표	187(38.6)	137(29.6)
교재 활용	103(21.3)	90(19.4)
교육강좌 제공	108(22.3)	82(17.7)
실습지도의 시범보임	73(15.1)	70(15.1)
녹음, 녹화 자료 분석	7(1.4)	6(1.3)
기타	16(3.3)	9(1.9)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실습지도의 형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보았다.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학기중에는 주 1회, 방학중에는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역시 수시로 주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수 퍼 비 전 형 태 (정기적 실시)		수 퍼 비 전 형 태 (비정기 실시/미실시)	
		개 별	집 단	개 별	집 단
학 기 중	수시로	72(14.9)	54(11.2)	103(22.2)	61(13.2)
	1주 1회	83(17.1)	125(25.8)	32(6.9)	45(9.7)
	2주 1회	5(1.0)	4(0.8)	6(1.3)	7(1.5)
	월 1회	7(1.4)	14(2.9)	10(2.2)	6(1.3)
	기타	12(2.5)	10(2.1)	3(0.6)	6(1.3)
방 학 중	매일	208(43.0)	240(49.6)	129(27.9)	107(23.1)
	주 3회	21(4.3)	25(5.2)	21(4.5)	24(5.2)
	주 2회	9(1.9)	18(3.7)	29(6.3)	37(8.0)
	주 1회	56(11.6)	67(13.8)	68(14.7)	67(14.5)
	기타	8(1.7)	4(0.8)	26(5.6)	16(3.5)

5-4) 실습수퍼비전 제공 기관의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의 수퍼바이저의 전문성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 심도있게 분석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4-1) 일반적 특성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 비해 여자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0대가 더 많았다. 이에 반해 비정기 실시 시설에서는 20대와 40대가 많았다.

단위: 개(%)

항 목		정기적 실시	비정기 실시/미실시
성별	남	177(36.6)	182(42.5)
	여	304(62.8)	243(56.8)
연령	21-30세	137(28.3)	131(30.6)
	31-40세	235(48.6)	179(41.8)
	41-50세	43(8.9)	65(15.2)
	51-60세	1(0.2)	6(1.4)
	평균	34.1	33.3

5-4-2) 전문성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 비해 학력과 경력이 높았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에서는 석사과정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많았고,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많았다.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비정기적 실시시설에서는 자격증 미취득자도 17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항 목		정기적 실시	비정기 실시/미실시
학력	고졸	5(1.0)	6(1.4)
	2년제	26(5.4)	64(15.0)
	4년제	210(43.4)	211(49.3)
	석사과정	234(48.3)	136(31.8)
	박사과정	5(1.0)	8(1.9)
전공	사회복지	436(90.1)	350(81.8)
	기타	30(6.2)	47(11.0)
실무경력	1년 미만	11(2.3)	17(4.0)
	1년 이상-2년 미만	22(4.5)	27(6.3)
	2년 이상-3년 미만	31(6.4)	39(9.1)

	3년 이상-5년 미만	93(19.2)	83(19.4)
	5년 이상 - 10년 미만	202(41.7)	147(34.3)
	10년 이상	121(25.0)	110(25.7)
자격취득	사회복지사 1급	402(83.1)	293(68.5)
	사회복지사 2급	32(6.6)	67(15.7)
	사회복지사 3급	1(0.2)	1(0.2)
	미취득	7(1.4)	17(4.0)

5-4-3) 실습지도 전문성

수퍼비전의 경력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정기적 실시 시설에서는 5년 이상,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더 많았으며, 비정기실시 시설에서는 1년 미만, 2년 미만의 경력자들이 더 많았다.

항 목		정기적 실시	비정기 실시/미실시
실습경력	1년 미만	68(14.0)	85(19.9)
	1년 이상-2년 미만	69(14.3)	83(19.4)
	2년 이상-3년 미만	89(18.4)	69(16.1)
	3년 이상-5년 미만	93(19.2)	79(18.5)
	5년 이상 - 10년 미만	126(26.0)	81(18.9)
	10년 이상	30(6.2)	20(4.7)

6) 실습지도비

6-1) 실습지도비 수령

실습지도비를 수령하고 있는 기관이 약 3/4에 달하였다.

단위: 개(%)

구분	개	%
예	704	74.3
아니오	231	24.4
총	935	100.0

* 무응답: 12개

시설이용방식에 따른 실습지도비 수령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이용 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실습비를 수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이 더 많이 실습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실습지도비 수령	이용	생활	기타
예	447(81.1)	210(66.2)	3(33.3)
아니오	104(18.9)	107(33.8)	6(66.7)

실습분야에 따른 실습지도비 수령여부는 다음과 같았다. 정부조직에서는 실습비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전담공무원 역시 단 한곳에서만 수령하고 있었다. 그 외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의 92.3%가 실습비를 수령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분야(75.5%)와 노인분야(74.7%), 그리고 정신보건(69.5%)로 실습비 수령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GO/NPO, 자활훈련기관에서는 50%미만의 기관들에서 실습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개(%)

구 분	예	아니오	총
지역사회복지관	239(92.3)	20(7.7)	259(100.0)
장애인	163(75.5)	53(24.5)	216(100.0)
노인	136(74.7)	46(25.3)	182(100.0)
여성	16(64.0)	9(36.0)	25(100.0)
아동	48(66.7)	24(33.3)	72(100.0)
청소년	7(63.6)	4(36.4)	11(100.0)
주요단체	8(66.7)	4(33.3)	12(100.0)
부랑인	8(57.1)	6(42.9)	14(100.0)
의료	7(63.6)	4(36.4)	11(100.0)
정신보건	41(69.5)	18(30.5)	59(100.0)
자원봉사	7(53.8)	6(46.2)	13(100.0)
정부조직	0(0.0)	3(100.0)	3(100.0)
전담공무원	1(9.1)	10(90.9)	11(100.0)
NGO/NPO	3(37.5)	5(62.5)	8(100.0)
자활후견기관	9(39.1)	14(60.9)	23(100.0)
복지재단	2(66.7)	1(33.3)	3(100.0)
기타	2(100.0)	0(0)	2(100.0)

6-2) 실습지도비 액수

실습생들이 실습시설/기관에 납부하는 실습지도비의 액수는 실습생의 학력에 따라 차등하고 있었다. 2년제나 4년제 대학생으로부터는 최저 10,000원 - 10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원생으로부터는 최저 20,000원에서 최고 130,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대학원생으로부터는 최저 30,000원에서 최고 8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차가 심한 이유로 중앙값을 보았더니 2/4년제 대학생으로부터는 40,000원을, 그리고 대학원생으로부터는 5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학부생에게서는 30,000원을, 대학원생에게서는 5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단위: 원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
2/4년제	10,000	100,000	47,000	40,000	30,000
일반대학원	20,000	130,000	48,000	50,000	50,000
특수대학원	30,000	80,000	47,000	50,000	50,000

이를 이용방식 및 분야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차이는 크게 없어 평균 4만원에서 5만원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액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 구분없이 1만원이었고 최고액은 이용시설에서는 15만원이고 생활시설에서는 13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타시설에서는 최저액 2만원에 최고액 8만원이고 평균 역시 8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용시설

단위: 원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
2/4년제	10,000	150,000	45,000	40,000	30,000
일반대학원	20,000	100,000	48,000	50,000	50,000
특수대학원	30,000	80,000	44,000	50,000	50,000

1) 특이하게도 지방의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습지도비를 1인당 800,000원을 받고 있으며 실습지도비의 적정선 역시 1,000,000원이라고 기록하여 보내왔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현실적이라 판단하였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생활시설

단위: 원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
2/4년제	10,000	100,000	54,000	30,000	30,000
일반대학원	30,000	130,000	50,000	50,000	50,000
특수대학원	30,000	70,000	61,000	50,000	50,000

(3) 기타

단위: 원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
2/4년제	20,000	80,000	45,000	40,000	20,000
일반대학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특수대학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분야별 차이는 평균(중앙값)에 대해서만 학부와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하므로)의 자료만 비교하였다. 전담공무원은 실습지도비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실습지도비는 학부의 경우 5만 원을 받는 정신보건과 의료, 청소년, 그리고 협회 등의 주요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는 8만 원을 받는 아동분야, 6만 원을 받고 있는 의료와 청소년분야에서 높은 실습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관은 평균값인 4만 원을 학부생으로부터, 5만 원을 대학원생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원

구분	지역사회 복지관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보건	의료	청소년
2/4년제	40,000	40,000	40,000	30,000	50,000	50,000	50,000
일반대학원	50,000	40,000	50,000	80,000	52,000	60,000	60,000

구분	부랑인	자원봉사	전담공무원	여성	자활후견	NGO	주요단체
2/4년제	30,000	30,000	-	30,000	40,000	30,000	50,000
일반대학원	-	-	-	30,000	20,000	50,000	50,000

6-3) 실습지도비 적정선

이렇게 실습비 수령액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실습비 액수로는 50,000원을 지적하고 있었다. 최저액 10,000원부터 최고액 150,000원까지의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중앙값이나 최빈치 모두 50,000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수령하고 있는 실습지도비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단위: 원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Mode)
2/4년제	10,000	100,000	70,000	50,000	50,000
대학원	30,000	150,000	78,000	50,000	50,000
특수대학원	30,000	150,000	84,000	50,000	50,000

이용방식과 분야별의 차이는 평균(중앙값)에 대해서만 비교하였다. 이용시설에서의 실습지도비 적정선 최저액은 학부는 1만원, 대학원은 3만원이었다. 이는 생활시설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기타시설에서만 학부 5만원 대학원 10만원이었다. 최고액은 이용시설은 학부와 대학원 동일하게 20만원이었으며 특수대학원의 경우 30만원을 책정하였고 생활시설에서는 20만원이었다. 기타시설에서는 학력 구분 없이 모두 1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시설에서의 중앙값은 5만원, 생활시설에서는 5만원(학부)과 6만원(대학원), 그리고 기타시설에서조차도 5만원(학부), 10만원(대학원)이었다.

단위: 원

구분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시설
2/4년제	50,000	50,000	50,000
일반대학원	50,000	60,000	100,000
특수대학원	50,000	60,000	100,000

실습실시 시설의 분야에 따른 실습지도비 적정선 최저액은 학부는 1만원, 대학원은 3만원이었다. 최저액이 가장 낮아서 1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들이며, 가장 높은 3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분야는 지역사회복지관, 장애, 노인 분야들이다. 학부에서 최고액을 가장 낮게 책정하고 있는 분야는 NGO/NPO 분야로서 3만원이며,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는 분야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장애인분야로 20만원이다. 대학원에서는 가장 낮은 분야가 자원봉사 분야로서 3

만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 20만원이었다.

단위 : 원

	지역사회 복지관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보건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2/4년제	20,000	200,000	10,000	200,000	10,000	150,000	30,000	150,000	10,000	100,000
일반 대학원	30,000	200,000	30,000	150,000	30,000	150,000	40,000	100,000	40,000	150,000
특수 대학원	30,000	300,000	30,000	150,000	30,000	150,000	50,000	100,000	40,000	150,000

	의료		청소년		부랑인		자원봉사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2/4년제	50,000	60,000	50,000	50,000	30,000	200,000	30,000	50,000
일반대학원	60,000	100,000	60,000	100,000	50,000	50,000	30,000	30,000
특수대학원	60,000	100,000	60,000	100,000	50,000	200,000	30,000	30,000

	여성		자활후견		NGO/NPO		주요단체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최저액	최고액
2/4년제	30,000	100,000	20,000	150,000	30,000	30,000	30,000	50,000
일반대학원	5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특수대학원	50,000	100,000	50,000	100,000	-	-	150,000	150,000

중앙값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학원생에게 학부생에게 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 부랑인, 복지재단 분야에서는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분야에서는 더 낮게 책정하고 있었고, 주요단체에서는 가장 큰 차이인 2배 높게 책정하고 있었다.

단위: 원

	지역사회 복지관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보건	의료	청소년
2/4년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일반대학원	50,000	50,000	70,000	72,500	75,000	70,000	65,000

특수대학원	50,000	50,000	70,000	75,000	65,000	70,000	80,000
	부랑인	자원봉사	복지재단	여성	자활후견	NGO	주요단체
2/4년제	50,000	40,000	50,000	50,000	50,000	30,000	50,000
일반대학원	5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50,000	100,000
특수대학원	-	30,000	50,000	70,000	70,000	-	150,000

6-4)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따른 분석

6-4-1)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따른 실습실시 이유

실습지도비를 받는 시설의 실습실시 이유가 실습지도비를 받지 않는 시설의 실습실시 이유와 다른지 살펴보았다. 실습지도비를 받는 시설에서는 인력양성을 실습실시의 이유로 한 경우가 81.4%나 된 반면에 실습지도비를 받지 않는 곳에서는 52.4%에 머물렀다. 반면, 실습지도비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의 실습이유는 인력보충이나 기관홍보인 경우도 각각 17.2%와 13.2%로 높게 차지하였다.

단위: 개(%)

실 습 비	실 습 이 유				총
	인력양성	인력보충	기관홍보	기타	
예	565(81.4)	45(6.5)	42(6.1)	42(6.1)	694(100.0)
아니오	119(52.4)	39(17.2)	30(13.2)	39(17.2)	227(100.0)

6-4-2)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따른 실습지도 내용

실습지도비를 수령하는 시설에서의 실습지도의 내용이 그렇지 않는 시설에서의 실습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집단활동, 사례관리, 가정방문, 사례발굴 등의 내용에 있어서 실습비 수령여부가 달리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비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 조금 더 높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개(%)

실습지도내용	실습비 수령여부	
	예	아니오
실습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생의 태도와 자세	691(99.5)	220(96.9)
기초 이론 교육	609(87.7)	168(74.0)
개별상담	477(68.7)	157(69.1)

집단 활동 및 지도	576(82.9)	148(65.1)
사례관리	568(81.8)	153(67.4)
가정방문	408(58.7)	77(33.9)
사례 발굴 (케이스 파인딩)	286(41.2)	51(22.4)
재활프로그램운영	324(46.6)	95(41.8)
사회조사	302(43.5)	50(22.0)
사회교육	231(33.2)	38(16.7)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등)	486(70.0)	131(57.7)
각종업무보조(서류, 문서정리, 복사 등)	440(63.4)	156(68.7)
캠프운영	335(48.2)	51(22.4)
사회운동, 홍보 및 옹호활동	262(37.7)	51(22.4)
팀 접근예의 참여	264(38.0)	47(20.7)
자원봉사자관리	253(36.4)	69(30.3)
타 기관방문	471(67.8)	114(50.2)
지역탐방	220(31.7)	52(22.9)
연구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380(54.7)	101(44.4)
기타	103(14.8)	20(8.8)

6-4-3)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따른 실습지도 도구

실습지도비를 수령하는 시설에서 활용하는 실습지도 양식 및 도구가 그렇지 않는 시설에서의 실습지도 양식 및 도구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실습지도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서는 학생신상서나 자기소개서조차 63.8%의 시설과 59.0%의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차이를 보인 도구로는 실습 의뢰 신청서 및 서약서(12%의 차이), 실습중간평가서(16.3%), 그리고 실습 레코딩(21.2%)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실습 지도 도구	실습비 수령여부	
	예	아니오
실습의뢰 신청서 및 서약서	564(81.2)	157(69.1)
실습계약서(기관과 학교)	285(41.0)	100(44.0)
학생신상서	636(91.6)	177(63.8)
자기소개서	545(78.5)	134(59.0)
실습기관에 관한 기초조사표	367(52.8)	83(36.5)
실습지도 계획서	658(94.8)	194(85.4)

학습계약서(수퍼바이저와 학생)	172(24.7)	47(20.7)
안전관리 수칙 안내	227(32.7)	71(31.2)
실습일정표	687(98.9)	201(88.5)
실습일지	692(99.7)	217(95.5)
실습생 출근 기록표	487(70.1)	148(65.1)
실습레코딩(과정기록지, 집단 활동지등)	459(66.1)	102(44.9)
실습중간평가서	425(61.2)	102(44.9)
실습종결평가서	651(93.8)	182(80.1)
실습 수퍼바이저 평가서	463(66.7)	145(63.8)
기 타	47(6.7)	7(3.0)

6-4-4)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따른 실습지도 방법

실습지도비를 수령하는 시설에서의 실습지도의 방법이 그렇지 않는 시설에서의 실습지도 방법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실습지도비를 받는 시설에서는 과정기록지를 조금 더 검토해준다거나(14%의 차이)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더 많다거나(14% 차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실습지도 수퍼비전 도구	실습비 수령여부	
	예	아니오
실습일지검토	655(94.3)	202(88.9)
직접관찰(배석, 일반경 등)	297(42.7)	107(47.1)
녹음, 녹화 자료 분석	12(1.7)	1(0.4)
사례과정 기록지 검토	333(47.9)	77(33.9)
구두로 주교받음	440(63.4)	147(64.7)
실습지도의 시범보임	104(14.9)	39(17.1)
사례발표	268(38.6)	56(24.6)
교육강좌 제공	154(22.1)	36(15.8)
교재활용	152(21.9)	41(18.0)
기타	17(2.4)	8(3.5)

6-4-5)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따른 실습수퍼바이저

실습지도비를 수령하는 시설에 실습수퍼바이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역시 실습지도비를 수령하는 시설에서는 실습수퍼바이저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비를 수령하는 시설의 92.1%가 실습수퍼바이저가 있다고 답

하였다. 반면에 실습지도비를 수령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단지 68.3%만이 실습수퍼바이저가 있다고 답하여서 실습비 수령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개(%)

실습비	수퍼바이저의 유무		총
	있다.	없다.	
예	645(92.1)	55(7.9)	700(100.0)
아니오	155(68.3)	72(31.7)	227(100.0)

6-4-6) 실습지도비 수령여부에 따른 실습수퍼비전의 정규성

실습지도비를 수령하는 시설에서의 실습수퍼비전의 정규성이 그렇지 않는 시설에서의 실습수퍼비전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실습지도비를 수령하는 시설에서는 57.3%가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실습지도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서는 39.8%만이 정기적으로 실습수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서는 50.7%가 실습생이나 실습수퍼바이저가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제공한다고 답하였다.

단위: 개(%)

실 습 비	실습기준				총
	제공하지 못함	수시로	정기적으로	기타	
예	5(0.7)	259(37.6)	395(57.3)	30(4.4)	689(100.0)
아니오	10(4.5)	112(50.7)	88(39.8)	11(5.0)	221(100.0)

7) 기관방문

실습생 대학에서의 기관방문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실습생 대학에서 방문하고 있다고 답한 시설은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거의 접촉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도 7%가 넘었다.

단위: 개(%)

항 목	개	%
거의 대부분(70%이상)의 대학에서 실습지도교수가 방문	398	42.8
일부 대학(30%이하)에서 실습지도교수가 방문	372	40.0

방문은 없으나, 전화·이메일을 통한 접촉	92	9.9
거의 모든 대학에서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음	66	7.1
본 기관에서 원하지 않아 실습지도교수와 접촉하지 않음	2	0.2
총	930	100.0

* 무응답: 17개

기관에서는 실습생을 보내는 대학에서의 방문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0.4%가 대학에서 실습담당교수가 실습지의 실습지도자를 방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단위: 개(%)		
	개	%
예	835	90.4
아니오	89	9.6
총	924	100.0

* 무응답: 23개

방문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의 거부이유는 대체적으로 기관방문이 형식적이어서 의례적인 방문에 그칠 뿐 시설이나 실습생에게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뿐더러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언의 압력을 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분 좋지 않은 것일뿐더러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시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번거롭거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였다. 또한 실습생에게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관방문이 실습지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었으며, 실습 때만 방문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8) 슈퍼바이저 인센티브

슈퍼바이저의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는 단지 8%에 달했으며, 그 내용은 교육우선권, 인사고과반영, 업무경감 등이었다. 수당의 지급은 단지 2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수당지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내용에는 ‘지방의 실습기관 양성 요망’, ‘선진 사회복지시설 직원 교차근무’, ‘실습관련 온라인 보수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

단위: 개(%)		
인센티브	개	%

없음	835	92.0
인사고과반영	16	1.8
수당지급	2	0.2
업무경감	12	1.3
교육우선권	34	3.7
기타	9	1.0
총	908	100.0

* 무응답: 39개

그렇다면 수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물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많은 수퍼바이저들인 59.5%가 기관 및 시설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들었다. 수퍼비전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관으로 돌리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정한 것(56.7%)이 해외연수나 교육 등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것을 지정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할인, 공동모금회 사업신청 시 가산점의 부여와 시간강사나 특강 등을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강의 청강 등을 들었다.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 시 가산점의 부여, 연수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시간강사 등의 특강기회 갖기와 교육비 할인 등 가장 원하는 것은 좀 더 수퍼바이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개(%)

인센티브	원함	가장 원함
기관 및 시설평가 시 가산점 부여	563(59.5)	244(28.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신청 시 가산점 부여	331(35.0)	82(9.6)
사회복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비 할인	399(42.1)	96(11.2)
협회의 회원서비스에 가산점(해외연수, 교육 등)	537(56.7)	245(28.6)
해당대학의 강의청강기회 제공	212(22.4)	60(7.0)
해당 대학 도서관 이용권리 제공	122(12.9)	13(1.5)
해당 대학에 강의제공(시간강사, 특강 등)	294(31.0)	102(11.9)
기타	28(3.0)	16(1.9)

* 복수응답 허용

이를 이용방식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이용시설에서는 해외연수나 교

육 등 협회에서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인센티브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29.8%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관 및 시설평가 시 가산점 부여를 24.6%의 시설에서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생활시설에서는 이 두 가지 인센티브를 선택한 것은 동일하였으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산점 부여가 3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협회의 회원서비스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인센티브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단위:개(%)

인센티브 욕구	이용	생활	기타
기관 및 시설평가지 가산점	123(24.6)	97(32.6)	3(3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신청시 가산점	45(9.0)	34(11.4)	0(0.0)
사회복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비 할인	59(11.8)	32(10.7)	2(0.2)
협회회원서비스에 가산점	149(29.8)	82(27.5)	0(0.0)
해당대학의 강의청강 기회 제공	40(8.0)	19(6.4)	1(0.1)
해당 대학의 도서관 이용권 제공	7(1.4)	6(2.0)	0(0.0)
해당 대학에 강의제공(시간강사, 특강 등)	64(12.8)	27(9.1)	3(33.3)
기타	13(2.6)	1(0.3)	0(0.0)
총	500(100.0)	298(100.0)	9(100.0)

9) 실습 지침

9-1) 실습지침서의 필요성

우선 표준화된 실습지침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거의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899개(97.9%)에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단위: 개(%)

구분	개	%
필요하다.	899	97.9
필요하지 않다.	19	2.1
총	918	100.0

* 무응답: 29개

9-2) 실습지침서의 내용

그리고 이 지침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58.4%로 실습지도의 방법과 기술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작성지침과 평가방법 및 기중으로 45.9%를 동일하게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보고서작성요령, 실습지도 내용, 그리고 실습생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포함되었다. 기타 내용에는 ‘실습담당교수와의 지도내용 공유 지침’ 등이 있었으며, 나열된 문항들이 거의 다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단위: 개(%)

항목	개	%
실습지도의 방법과 기술	553	58.4
실습지도 프로그램 작성 지침	435	45.9
실습평가 방법과 기준	435	45.9
보고서 작성요령	371	39.2
실습지도 내용	352	37.2
실습생의 마음가짐과 태도	350	37.0
대학 측의 사전준비 지침	294	31.0
대학 측의 실습준비 지침	214	22.6
기관 오리엔테이션	167	17.6
실습담당교수 기관방문 지침	96	10.1
실습지 선정 안내	93	9.8
기타	14	1.5

* 복수응답 허용

9-3) 실습지침서의 이용 현황

현재 이 기관들에서는 2002년도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발행한 교과목지침서의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 기관들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침서가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아예 지침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9-3-1) 실습지침서

실습지침서의 경우 협의회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12.8%에 불과했으며 기관 자체에서 개발한 것조차도 사용하지 않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1%에 달해 활용가능한 지침서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단위: 개(%)

구분	개	%
기관 자체 개발한 것 사용	433	47.1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에서 개발한 것 사용	118	12.8

사용하지 않음	369	40.1
총	920	100.0

* 무응답: 27개

9-3-2) 실습지침서에 따른 실습지도의 차이

(1) 실습지침서에 따른 실습지도 정규성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실습지침서의 사용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66.4%가 실습지침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52.8%만이 실습지침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57.7%가 실습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실습지침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서는 단지 43.6%만이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었다. 실습지침서의 사용과 수퍼비전의 정기적 제공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단위: 개(%)

	수퍼비전 제공	
	정기적으로	비정기/비제공
실습지침서 사용	318(66.4)/(57.7)	233(52.8)/(42.3)
실습지침서 비사용	161(33.6)/43.6)	208(47.2)/(56.4)

(2) 실습지침서에 따른 실습지도 내용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습지도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집단활동, 사례관리, 개별상담, 사회조사, 사례발굴, 팀접근 참여, 사회운동, 사회교육 등 집중적인 실습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위: 개(%)

실 습 내 용	실습지침서 사용	실습지침서 비사용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생의 태도와 자세	547(99.3)	358(97.0)
기초 이론교육	485(88.0)	287(77.8)
집단 활동 및 지도	460(83.5)	257(69.6)
사례관리	456(82.8)	259(70.2)
개별상담	404(73.3)	226(61.2)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등)	396(71.9)	214(58.0)

타 기관 방문	387(70.2)	192(52.0)
업무보조(서류, 문서정리, 복사 등)	359(65.2)	233(63.1)
가정방문	321(58.3)	158(42.8)
연구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320(58.1)	154(41.7)
재활프로그램운영	272(49.4)	146(39.6)
캠프운영	268(48.6)	115(31.2)
사회조사	244(44.3)	105(28.5)
사례발굴(케이스 파인딩)	234(42.5)	97(26.3)
팀접근에의 참여	221(40.1)	88(23.8)
사회운동, 홍보 및 옹호활동	214(38.8)	96(26.0)
자원봉사자관리	203(36.8)	116(31.4)
지역탐방	192(34.8)	177(48.0)
사회교육	184(33.4)	82(22.2)
기타	77(14.0)	46(12.5)

(3) 실습지침서에 따른 실습지도 도구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습지도 도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실습종결평가서, 실습의뢰서 및 서약서, 수퍼바이저평가서, 실습레코딩, 실습중간평가서, 실습계약서, 학습계약서, 그리고 실습생의 안전관리수칙안내 등이 지침서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비해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단위: 개(%)

실습 도구	실습지침서 사용	실습지침서 비사용
실습일지	544(98.7)	358(97.0)
실습일정표	544(98.7)	338(91.6)
실습지도 계획서	525(95.3)	320(86.7)
실습종결평가서	517(93.8)	309(83.7)
학생신상서	505(91.7)	301(81.6)
실습 의뢰 신청 및 서약서	461(83.7)	254(68.8)
자기소개서	437(79.3)	234(63.4)
실습생 출근 기록표	413(75.0)	219(59.3)
실습수퍼바이저 평가서	404(73.3)	200(54.2)
실습레코딩(과정기록지, 집단활동지 등)	389(70.6)	166(45.0)
실습중간평가서	362(65.7)	158(42.8)
실습기관에 관한 기초조사표	306(55.5)	142(38.5)

실습계약서 (기관와 학교)	246(44.6)	136(36.9)
안정관리수칙안내	200(36.3)	96(26.0)
학습계약서(수퍼바이저와 학생)	163(29.6)	54(14.6)
기타	42(7.6)	200(54.2)

(4) 실습지침서에 따른 실습지도 방법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습지도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습지침서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실습일지 검토 비율이 더 높았으며, 사례발표와 교재활용의 빈도가 더 높았다.

단위: 개(%)

실습수퍼비전 제공방법	실습지침서 사용	실습지침서 비사용
실습일지 검토	517(93.8)	334(90.5)
구두로 주고 받음	325(58.9)	258(69.9)
사례과정 기록지 검토	271(49.1)	138(37.3)
직접관찰(배석, 일반경 등)	240(43.5)	162(43.9)
사례 발표	223(40.5)	98(26.5)
교재 활용	132(23.9)	59(15.9)
교육강좌 제공	137(24.9)	53(14.4)
실습지도의 시범보임	88(15.9)	53(14.4)
녹음, 녹화 자료 분석	10(1.8)	3(0.8)
기타	13(2.4)	12(3.3)

9-3-3) 실습지도 양식

실습지도 양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발행한 교과목지침서의 실습지도 양식을 사용하는 기관들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식이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교육협의회 양식과 기관 자체 양식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자체 개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여 53.1%에 달했으며, 아예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24.1%로 1/4에 해당되고 있어 표준화된 양식의 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단위: 개(%)

구분	개	%
----	---	---

기관 자체 개발한 것 사용	486	53.1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것 사용	68	7.4
기관 자체 개발 양식과 교육협의회 양식 혼용	141	15.4
사용하지 않음	221	24.1
총	916	100.0

* 무응답: 31개

9-3-4) 실습평가서

실습지도 평가서에 관한 것도 은 2002년도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발행한 교과목지침서의 실습평가서를 사용하는 기관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침서가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아예 평가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침서나 양식에 비해 평가서는 교육협의회의 것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55.1%로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실습점수를 매겨서 학교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내주는 평가서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위: 개(%)

구분	개	%
기관 자체개발한 것 사용	300	32.6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것 사용	506	55.1
사용하지 않음	113	12.3
총	919	100.0

* 무응답: 28개

10) 대학에 바라는 내용

실습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실습생을 보내는 대학에 바라는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50%를 넘게 차지한 항목이 학생들을 실습지에 보내기 전에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달라는 것이고(50.3%) 그보다도 더 이론과 현장의 연계(59.5%)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그 외 실습지도자 간담회의 개최라든가 임상방법론 교육의 강화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항목	개	%
이론과 현장의 연계	563	59.5
실습 오리엔테이션	476	50.3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253	26.7
임상방법론 교육 강화	221	23.3

실습수퍼바이저의 평가 의견 존중	183	19.3
실습지 선정 과정의 협조	183	19.3
이론교육	164	17.3
기법교육	143	15.1
실습 담당교수의 협조	121	12.8
담당교수의 기관방문	105	11.1
실습 일자 조정	97	10.2
실습기간 통일 실습	85	9.0
기타	13	1.4

* 복수응답 허용

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바라는 내용

바라는 바에 대해 서술하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한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는데, 이번 설문지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서술이 많았다. 그만큼 실습과 관련하여 협회나 교협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1-1) 표준화된 지침서

약 14%에 해당되는 160명이 표준화된 지침서를 협회가 만들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매뉴얼 형태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서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표준화된 양식과 표준화된 평가서가 제시되어야 함을 굳이 밝혔다. 실습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하는 실습일지의 양식조차 통일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표준적인 일지양식과 기타 양식을 담고 있는 이같은 지침서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활용을 위해 교육이나 워크숍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같은 교육이나 연수는 정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실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자주 행해지도록 요청하였다. 실습지침서는 현장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어야 함을 유념하도록 하였으며, 실습수퍼바이저가 지녀야할 소양에 대한 가이드의 제공도 지적하였다. 기관의 유형별로 특성이 반영된 실습지도지침서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학력별로 차이가 반영된 실습지도지침서의 요구도 제시하였다. 분야별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실습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므로 시설유형별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는 분야별 실습지침서, 매뉴얼, 각종 양식의 마련 등 실습표준화모델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 특성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화도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년 보고서 형식의 책자를 출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분야별 매뉴얼의 개발은 지역별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11-2) 인증제의 도입

실습기관인증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실습수퍼바이저인증제의 도입을 함께 제안하는 견해가 많았다. 인증제를 통해 수준미달의 실습기관들을 정리하고 질적으로 전문적인 실습기관들에서만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실습수퍼바이저를 표준화하고 동시에 실습수퍼바이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습수퍼바이저 자격증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퍼바이저 인센티브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피력되었으며, 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같은 실습수퍼바이저 인증제는 실습수퍼바이저에게 실습교육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으므로 더욱 내실있는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습수퍼비전 및 실습수퍼바이저의 제도적 기틀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실습인증센터”를 도입해보는 것도 제안으로 제시되었다.

11-3)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실습수퍼비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실습수퍼바이저에게 보다 나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습수퍼바이저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많았다.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과 함께 심도있는 교육일 것을 요구하였다. 협회차원에서 실습수퍼바이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습수퍼바이저의 “지도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11-4) 효과적인 평가서 개발

실습생의 실습내용 평가의 척도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기관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틀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평가서가 개발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직원이 실습을 하게되는 경우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11-5) 대학과의 연계 및 실습지도교수의 관심 유도

실습을 의뢰하는 대학과 대학에서 실습을 책임지고 있는 실습지도교수와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과 현장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교수들이 실습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실습지도교수의 실습기관방문이 있어야함을 주장하였고, 실습수퍼바이저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체계적인 실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 정보를 교환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 견해도 있었다. 실습에 대해 대학에서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전에 대학을 방문하여 기관의 실습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습을 위한 설명회의 필요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으며, 희망하는 실습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대학측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습교수와 실습수퍼바이저의 실습지도평가회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1-6) 실습수퍼바이저의 업무부담 조정

실습수퍼바이저들이 실습지도이외에도 원래의 업무 그대로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로 인해 실습지도에서 충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실습수퍼비전의 활동이 정규업무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업무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습수퍼바이저를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11-7) 실습내용의 전문성 강화

실습내용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실습을 전담하는 실습수퍼바이저가 없는 기관에서는 실습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주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입장에서는 학생을 선별해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대학에서 무성의하게 배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습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실습일정이 대학마다 다르고 또 시설마다 다르므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일되고 일치된 일정을 요구하였다. 그런가하면 유연한 실습일정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하나 있었다. 결국 실습의 구체적인 틀을 갖고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전문직의 내실화를 함께 꾀하자는 의견이 유력하였다. 다른 전문직처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체계화되고 성실한 교육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실습지에 배정되기 전 실습을 위한 기본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을 대학에서 통제해주기를 바라는 견해가 있었으며 실습일지작성이나 기본적인 기록 등 실습지에서 해야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기를 바랐다.

11-8) 기타

실습을 학점을 따기 위해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쳐가야하는 절차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실습은 하지도 않고 기관에 나와 실습한 것처럼 실습일지 쓰고 거기에 도장만 받아가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역시 실습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의 수의 부족으로 인해 계획도 없이 실습생을 받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양성과정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실습에 임하는 경우 실습을 원칙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위실습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장치를 요청하였다. 제대로 실습을 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협회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습비의 현실화를 요청하면서 실습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습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대학에서 구조적인 실습비제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실습캠프나 기간제 실습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부족한 실습기관의 문제해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습기간의 문제를 인턴제도의 도입이나 연수제도의 도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협회차원에서 실습기관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학생들이 실습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과 같은 설문지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더 나은 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